Diving into Summer

08. August

여름 속으로 다이빙하기

무겁게 내리던 비도 그치고 태양이 이글이글 세상을 익히는 8월이 왔다. 무엇보다 신나는 여름방학이 한창인 때. 아이들은 흐르는 땀에도 굴하지 않고 뛰어다니며 알록달록한 추억을 그려나간다.

여름방학을 맞아 노원에서도 어린이 그리고 새로운 체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21세기 가장 핫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시부터 AR과 게임으로 직접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는 체험 전시, 그리고 두 가지 인형극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공연까지! 다채로운 문화생활과 함께 이 여름으로 풍덩! 다이빙해 보자.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풍경에 담아낸 기차길의 구름과 새소리

디자인 스튜디오 비아크래프트 인터뷰

풍경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건 대부분 자연의 경치일 것이다.
최근 개최된 <애브리띵 굿즈> 공모전에서는 경춘선숲길 기차길의 풍경을
소리로 담아낸 다른 의미의 '풍경'이 노원문화재단의 대표 굿즈로 선정됐다.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인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며 영롱한 소리를 낸다.
굿즈 하나에 소리와 운치를 모두 담아낸 이가 누구일까?
디자인 스튜디오 비아크래프트를 만나보았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비아크래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원아띠 구독자분들에게 비아크래프트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비아크래프트입니다. 비아(via)는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지를 향해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비아크래프트는 섬유·텍스타일 디자인 스튜디오로 텍스타일* 디자인을 베이스로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텍스타일
공예미술의 한 종류. 수공예나 공업을 통하여
천을 짜고 엮고 염색하거나 수를 놓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세계미술용어사전)

이번 <에브리띵 굿즈> 공모전에서
노원문화재단 기념품 제작으로 대상을 타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잘 볼 수 없는 풍경종에 노원의 숲길과
기차길이 떠올리는 모빌을 단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풍경종은 기념품으로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간에 걸어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준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새롭게 봐주신 것 같아요. 경춘선숲길을 따라 늘어선 멋진 나무들과 여유롭게 거닐던 산책길을 생각하며 작업하게 되었어요. 새가 날아들고 구름이 떠다니는 기차길 풍경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노원문화재단 공모전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노원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공릉동에 있는 서울여성공예센터에 입주하면서 노원에 머물게 되었어요.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리움굿즈 공모전이에요. 올해는 특별히 노원문화재단과 함께 아리움 에브리띵즈 굿즈 공모전이 개최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입주기업이되면 공방형 창업실에 입주할 수 있고 공예와 창업, 세무, 마케팅 등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 받게 되어 있어요.
개인 창업실 외에도 여러 기자재와 장비를 사용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인 크래프트 팜과 섬유, 도자, 금속 등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창작공간 등이 있습니다.

아크릴로 하는 풍경종, 모빌 작업 외에도
실로 하는 직조공예나 터프팅 등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업해오신 이력이 어떻게 되나요?

섬유·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으로 섬유를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직조, 터프팅등 실을 활용한 작업과 원단에 프린팅을 하는 텍스타일 디자인 그리고 염색기법으로 모빌 풍경종과 같은 오브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이라는 소재만 생각하면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섬유 전공 과정 중에 염색 기법을 배우기도 한답니다.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 실을 염색해서 사용하고 아크릴도 실처럼 원하는 색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고 계신 작업이 있으실까요?
작가님의 최근 관심사는 어떤지요?

지속 가능성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재료들에 대한 새로운 생명력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작업을 하거나 워크숍을 할 때 재료 중 사용하고 남은, 버려지는 것들을 새롭게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의도 더현대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에서 버려진 아크릴과 재생 아크릴을 활용한 모빌 만들기 체험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반응이 좋았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성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2023년도 절반이 남았네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소망이 있다면요?

7월 코엑스에서 열린 핸드아트코리아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굿즈 공모전을 포함한 여러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많이 바쁜 7월이었어요. 8월에는 잠시 숨을 고를 예정입니다.
9월과 11월에는 공예전시회에, 12월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자인 페스티벌과 공예 트렌드 페어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이제까지 소품 위주의 작품을 선보였다면 공예 트렌드 페어에서는 섬유 공예 작업들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작업을 고민하며 더 멀리 나아가고 싶다는
작가님의 답변이 가슴에 남는다.
풍경에 담겼던 그의 섬세한 손길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느껴진다. 하반기도 바쁘게 달려갈 비아크래프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친다.

바다와 나, 게임과 함께 즐기는 해양전시 체험

바다와 요나 그리고 너의 시간

무더위에 지친 이 여름,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전시가 찾아왔다.
바다 속의 비밀 같은 이야기를 펼쳐놓는 요나. 하지만 마냥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그 속을 유영하는 고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작은 전시장에는 다채롭게 전시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요나와 함께 바다로 떠나보자.

글. 사진. 전은진(노원아띠 PM)

꿈꾸는 바다 대신 진실 속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기찻길 옆 경춘선숲길 갤러리. 그 자그마한 전시장의 공간은 <바다와 요나 그리고 너의 시간>이라는 전시의 제목처럼 각각 읽는 시간, 보는 시간, 줍는 시간 등으로 나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읽는 시간에서는 해양환경동화 <요나이야기>의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일러스트 작품을 볼 수 있다. 죠죠와 마니가 고래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 더미를 고래로 착각하고 바다로 뛰어들면서 겪는 이야기로, 고래의 뱃속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보며 충격에 빠지게 된다.

그 옆 보는 시간에서는 전시 굿즈로 판매하는 엽서를 태블릿 화면에 비추면 방금 보았던 일러스트 동화를 AR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쓰레기들, 그 쓰레기들을 먹으며 고통에 처하고 이윽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래와 해양동물들의 이야기를 귀엽지만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접하고 나니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이 생긴다.

이제는 직접 실천하며 변할 시간

경춘선숲길 갤러리 <바다와 요나, 그리고 너의 시간>

2023.7.13(목) ~ 8.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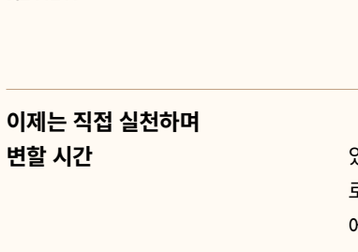
경춘선숲길 갤러리

전시장 가장 안쪽에 있는 줍는 시간에서는 2D게임으로 직접 바다에 있어선 안 되는 쓰레기들을 주워 고래의 영혼인 요나를 구할 수 있다. 패드로 이야기를 쫓아가며 게임을 하고 엔딩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도 메시지로 남길 수 있다.

생각의 시간은 마치 고래의 커다란 뼈가 동굴처럼 이어진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폐사하여 해변에 떠내려 온 고래를 생각하며 각각의 뼈에 손전등 빛을 비추면 고래가 발견된 장소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마치 수수께끼 게임을 하듯 찾기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 진실에 도달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전시의 큰 줄기가 끝이 나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쌓는 시간이 남아 있다. 알록달록 귀여운 전시 굿즈 옆 리플렛에 그려진 요나와 고래에 색칠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볼 수 있다. <요나이야기>에 참여한 어린이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어 전시의 재미가 배가 된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거부감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와 고래를 지키기 위한 방안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전시, 이번 여름에 꼭 함께 해보길 바란다.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노원구의 청년의 '내일'을 만나다

서울청년센터 '노원오랑'과 청년일자리센터 '내일'

노원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총 7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가 13만 5,000여 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노원구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꽤 많이 조성되어 있다.
이번 노원아띠에서는 '청년의 오늘을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의 청년을 만나는
'노원오랑'과 '청년의 내일'을 돕는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을 만나본다.

글. 손혜리(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오랑, 청년 일자리센터 내일, 손혜리

서울청년센터 노원오랑

노원오랑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다. 난생처음 집을 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부터 취업정보, 금융 정책 등 청년 정책들과 함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삶에 꼭 필요한 정책뿐 아니라 동아리 지원이나 원데이클래스는 물론, 집수리 클래스까지 청년을 위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원오랑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드는 생각은 '우와, 좋다!'였다. 여기저기 깔린 테이블마다 청년들이 노트북을 펴고 공부를 하거나 회의를 하고 있었고, 안쪽으로는 회의실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었다. 빵빵한 와이파이는 물론! 그야말로 멀티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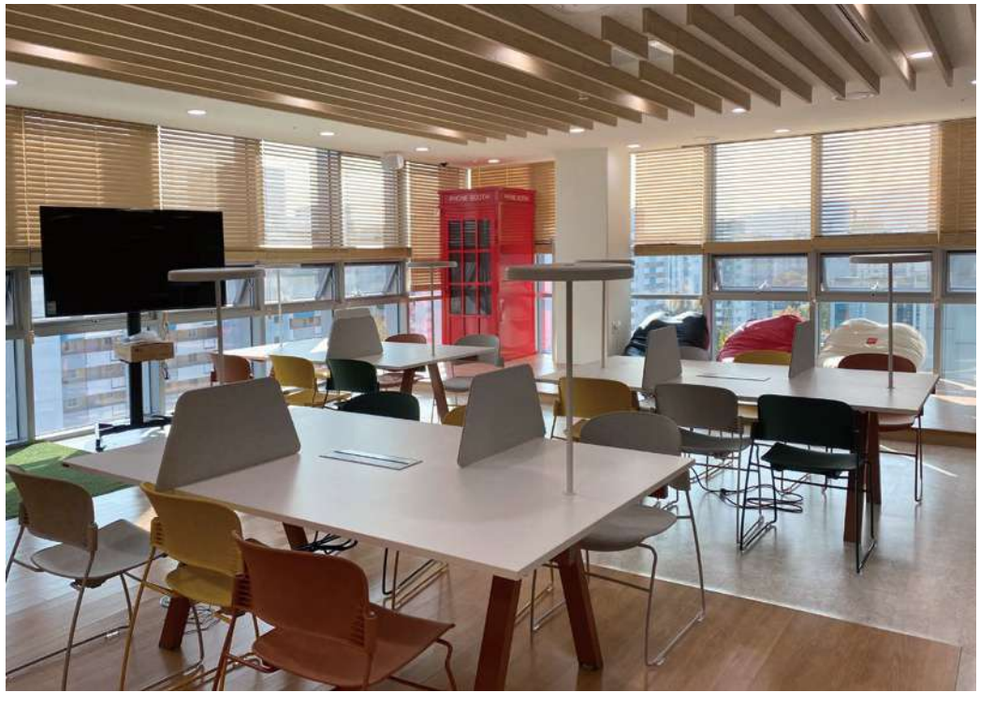
회의실과 VR 면접실, 컴퓨터 이용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VR룸에서는 VR로 현장 면접을 실전 연습해보고, 면접관이 보는 나의 태도와 상태를 점수로 알려준다. 1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은 대여를 통해 스터디룸, 회의실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

작년 11월, 노원오랑 옆에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이 개관했다. 노원오랑과 다른 점은 청년과 딱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제공해준다는 점. 청년 스스로가 삶을 돌보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전반적인 취업 상담과 커리어 클래스, 멘토링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취업교육, 면접 정장 대여와 취업사진 촬영, 자소서를 첨삭해주는 자소서 클리닉을 돕는 취업지원서비스, 힐링프로그램과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하는 특화 프로그램까지 청년의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일자리센터 내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면접 정장 대여는 자켓부터 셔츠, 블라우스, 구두와 벨트까지 대여해준다. 긴급대여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꼭 들려보기를 추천한다.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5 9층
- 02 937 5550
- 월~금요일 10:00~22:00
  토요일 10:00~17:00, 매주 일요일 휴무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5 9층
- 02 932 2500
- 월~금요일 10:00~18:00
  토요일 10:00~13: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휴무

노원구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센터 두 곳은

노원구에 터전을 잡은 청년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노원오랑과 청년내일은 너무 감사한 곳이다.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덕분에 새로운 취미도 얻을 수 있었다. 또, 동아리 지원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 노원오랑에 감사한다. 청년내일은 나의 일자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걱정없이 준비할 수 있게 내 능력 외의 것들을 마련해 준다는 것에 감사하다.

센터를 운영하는 매니저님들도 친절하고 따뜻해 항상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청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려 하고, 적합한 정책들을 소개해주며 청년과 함께 나아가는 곳. 미래에 대해 갑갑한 마음과 고민이 있는 청년들,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인 노원오랑과 청년내일을 찾아가 보길 권한다.

자연에서 힘을 얻다, 문화공간 정담에서 열리는 힐링킴즈의 전시회

동양화·서양화·유리화의 조합, ‘힐링킴즈’ 세 작가를 만나다

노원문화재단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 전시지원으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
문화공간 정담에서 열리는
<Healing Story in Nowon>의
작가들을 만났다.
김유경, 김지혜, 김태희(가나다순)
세 작가는 각각 동양화, 유리화,
서양화 전공이다. 하지만
노원을 잘 알고, 노원의 자연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폭우와 폭염으로 힘들었던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힐링킴즈
세 작가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글. 김윤지(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힐링킴즈, 김윤지

왼쪽부터 김태희, 김지혜, 김유경 작가

중첩된 기억과 감정을 투명하게 담아내는 유리화 작가 김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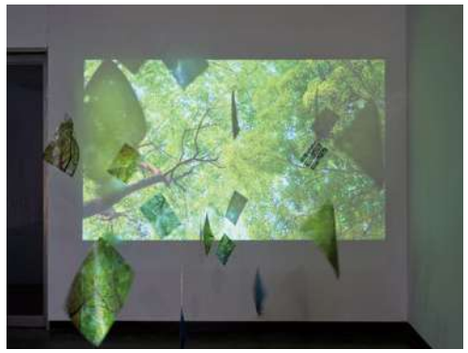
작업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나 과거 어떤 순간에 들었던 감정과 기억을 중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를 겹치고 쌓는 작업이에요. 스테인드글라스는 보통 성당이나 교회 건축물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유리에 그려진 성인 이미지들 보면 되게 세밀하거든요. 그게 다 페인팅이에요. 그렇게 구워내면 몇백 년이 지나도 변색되거나 긁히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돼요.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은 어떤 거지요?

<작은 화초들>은 폐건축 판유리마다 안료로 페인팅해서 겹친 작품이에요. 가마에 구우면 색상 안료가 투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인팅이 겹쳐서 보여요. 붓 터치 하나하나도 저한테는 다 레이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중첩시키며 작업을 할 때의 감정 혹은 기억을 담아내요. 일상을 기록한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화초들(2023)
폐건축유리에 안료 페인팅, 가마소성, 타카심, 가변설치, 21ea, 90×150cm



처음의 이유_올려다 봄(2023), 비디오<올려다 봄>(2016~2022)
30min 40sec, OHP필름에 디지털 프린팅, 빔프로젝터, 가변설치

색깔들의 이야기를 촉촉하게 담아내는 서양화 작가 김태희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추상화를 그리고 있어요.
<겨울의 경계>라는 작품인데요. 하와이에서 공부할 때 다이아몬드 헤드를 올라갈 기회가 생겼어요.
비교적 쉬운 하이킹 코스였는데, 운 좋게도 거기에서 일출을 봤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보슬비가 내리면서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일출과 비, 그리고 무지개. 동시에 보기 힘든 광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너무 힘들던 시기였거든요. 해와 무지개를 보며 희망이 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걸 전하고 싶어 그린 그림이에요.

겨울의 경계(2021)
판넬에 종이, 파스텔, 아크릴, 먹, 72.7×72.7cm

여우비(2021)
판넬에 종이, 아크릴, 파스텔, 73.1×117cm

비상_희망(2022)
화선지에 혼합재료, 130×130cm

불암산 쥐바위(2023)
화선지에 먹, 28×21cm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당시 교수님들이 저의 한국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여우비 설화를 찾았어요. 여우비가 맑은 날 잠깐 비가 내렸다 그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날을 여우가 시집가는 날 혹은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여우를 짝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여우가 호랑이에게 시집을 가버려서 슬프지만, 여우의 행복을 빌어줬대요. 단순한 설화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철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구름의 심경 변화를 중심으로 여우비 시리즈 작업을 했어요.

용기와 예민함으로 자기의 길을 찾는 동양화 작가 김유경

작가님 이야기도 궁금해요.

학부 졸업 전시에서 느끼는 것을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그림에는 그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극사실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거기에만 집중하고 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지를 저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원하는 작업 방향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기존에 하던 것을 다 버리고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처음 시작했던 게 추상적인 표현이었는데 확실한 매개체가 없다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를 거의 1년 동안 겪었어요.

고민하던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 보고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생각났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새를 그려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어져 비상 시리즈가 됐어요. 뜻하지 않게 얻게 된 핸디캡으로 인한 비상, 이로 인해 얻게 된 슬프고 쓰라린 비상, 이러한 상처와 고통의 삶을 벗어나 꿈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는 비상,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각각 담고 있어요. 바탕은 파란색으로 힐링 되고 차분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표현했고, 하얀 선으로 표현한 새는 날아 오르려는 자유의지와 희망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의미해요.

이번에 전시를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김지혜 셋 다 자연적인 모티브로 작업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노원에 연고도 있기에 각자 생각하는 힐링 스팟을 체크해 보자 했어요. 몇몇 장소가 나왔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등을 공유하다 보니까 참여형 전시로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시 주제와 참여형 전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노원구 힐링 스팟은 어딘가요?

김태희 저는 북서울미술관과 앞 공원이요. 그런데 그 공원과 차도 건너편 공원이랑 합친다고 하더라고요. 합쳐지면 얼마나 더 예쁠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지혜 저는 나비 정원 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철쭉이 다졌을 때, 초록초록할 때 가서 노을 지는 걸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김유경 저는 당현천이요. 당현천에 자주 가는 이유가 거기에 다양한 새들이 사는데,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사진을 찍어요. 그 외에도 당현천의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들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불암고등학교 뒤로 보이는 불암산도 좋아해요.

세 작가의 이야기, 모두 흥미로웠다.
힐링킴즈의 작품이 걸려있을 8월의 정담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됐다. 아마도 세 작가의 개성이 보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자연과 같은 모습이 아닐지 예상해 본다.

Healing Story in Nowon

2023.8.1(화)~5(토)
10:00~22:00

정비시간
화~금요일 12:00~13:00
토요일 17:00~18:00

문화공간 정담
서울 노원구 중계로 169

•–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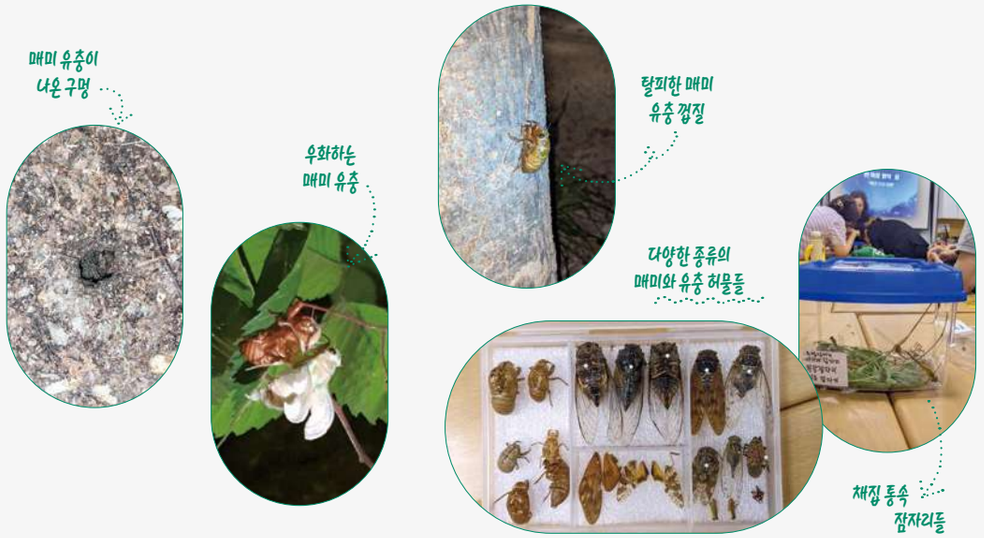
노원에코센터에서 만나는 '한여름 밤의 꿈'

야간 곤충 탐험

이른 폭우와 폭염이 찾아온 대한민국은 열대야로 벌써 밤잠을 이루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과 짜릿한 냉수마찰 그리고 한여름보다 더 뜨겁게 구애를 알리는 매미 소리가 여름을 제대로 지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뜨거운 도심 속 열대야를 특별하게 만들어 줄 노원에코센터의 '한여름 밤의 꿈'을 만나고 왔다.

글. 사진. 이현주(노원문화PD 1기)

여러 곤충을 관찰하는 참여자들



노원에코센터의 '한여름 밤의 꿈'은 여름 중 딱 한 번 매미가 땅에서 올라와 우화를 거쳐 성충이 되는 과정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체험이다. 매미는 나뭇가지나 껍질 속에 알을 낳는데, 이듬해 알에서 깨어난 매미 유충은 땅속으로 내려가 길게는 17년, 짧게는 4년 동안 땅속에서 성충이 되는 시간을 기다린다.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가 지나가고 땅이 보드라워지고 나무에 수액이 가득한 때가 되면 매미 유충은 나무로 올라와 자리를 잡은 후 유충 허물을 벗는 우화*를 거쳐 드디어 매미 성충이 된다. 노원에코센터의 야간 곤충 체험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이 과정을 하룻밤에 모두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번 탐험은 '한여름 밤 매미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야간 곤충 탐험은 7월 21일, 22일 양일간 진행되었는데, 저녁 7시 30분이 되자 아기자기한 곤충 채집채와 곤충채집통을 들고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여러 곤충의 일생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쉽고 유익한 해설을 듣고 곤충을 직접 보고 관찰했다.

강의실 해설이 끝나고 드디어 매미를 만나러 출발했다. 노원에코센터 주변의 마들체육공원은 아주 넓은 숲으로 다양한 매미 군을 만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라고 했다. 주말이라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숲속 나무마다 매미들의 유충부터 우화를 거쳐 성충이 되는 한 편의 연극 같은 '한여름 밤의 꿈'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화
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표준국어대사전)

2023 '한여름 밤의 꿈' 포스터

한여름 밤의 꿈 '구절초', '나비', '봄이', '이슬' 해설사

숲에 들어서자마자 나무 아래 수많은 구멍이 보였다. 구멍이 많은 나무 위로 눈을 돌리자 여기저기 매미 애벌레가 군데군데 붙어있고, 간혹 애벌레 등을 뚫고 우화를 시작한 애벌레들도 만날 수 있었다. 숲 주변 참매미와 말매미 그리고 애매미가 많았는데, 애벌레 색은 투명한 맑은 갈색을 띠고 보석 같은 까만 눈이 앙증맞았다. 우화를 막 시작한 매미 애벌레는 고운 비취색이다.

매미 유충 껍데기를 관찰하는
참가자 이은호 학생

야간 곤충 탐험에 참여한 광운중 1학년 이은호 학생은 “알에서 매미가 될 때까지 정말 오래 걸리네요. 진짜 멋진 과정이고 우화하는 동안 매미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인지 처음 알았어요. 매년 수업 중이나 주말에 쉴 때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었는데 이젠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라고 매미 관찰 소감을 말했다.

껍데기를 채집한
참여자 이민호학생

매미 성충
표본 관찰

야간 곤충 탐험 해설자 구절초 선생님은 “도심 속에서 매미의 우화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도심 속인 노원에코센터의 마들체육공원은 다양한 수종으로 이뤄져 여러 매미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으로 매년 야간 곤충 탐험 참가자들의 후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야간 곤충 탐험은 단순하게 곤충이나 매미의 우화를 체험하는 것 외에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작은 변화를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지구 환경의 변화로 생물의 다양성이 빠르게 저하되고 따라서 생태계의 균형도 급격하게 깨지고 있어 참가자들이 작은 곤충이지만 생명이 소중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라고 기획 의도를 알렸다.

셰익스피어의 동명 희곡 ‘한여름 밤의 꿈’에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말한다. 노원에코센터의 야간 곤충 탐험 프로그램을 통해 노원구민들이 생명과 자연 그리고 지구를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사랑할 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매미 유충을 찾는
참여 가족들

09. September

Colors of the Autumn

가을로 물들어가는 색채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듯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윤동주의 시 <소년>에서는 가을 하늘의 푸르름을 파란 물감에 빗대어 이야기한다.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는 계절. 꽃 피우는 봄만큼이나 환상적인 색칠 놀이를 하는 가을. 하늘에는 파란 물감이, 땅 위에는 빨갛고 노란 물감이 손에 묻어나올 정도로 진하게 물들어 간다. 처서매직이라는 말만큼이나 마법처럼 공기가 선선해진 9월, 곡식이 익는 것처럼 노원에도 지난 계절들이 심고 피워놓은 씨앗과 열매가 풍요로운 문화 행사로 펼쳐진다. 책 읽기에도, 미술관 나들이 가기도, 가을밤 음악회를 즐기기에도 좋은 때, 이 계절에 물들어 보자.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기동이와 함께, 여름이었다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생활문화축제

인턴으로 발령받았기동!
노원문화재단 인턴이자 생활문화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기동'과 아띠가 만났다.
'기동'을 업어 키우는 모두의 생활문화 팀원들의 땀방울이 반짝였던 여름,
그리고 다가올 가을의 생활문화축제 이야기는 덤.

글. 사진. 문화진흥부

기동이의 여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노원문화재단에 입사한 인턴 기동이기동. 문화진흥부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 앰배서더로 활약하고 있기도 하기동.

최근 참여한 생활문화 활동은 무엇인가요?

월계동 '극단 기적'에서 재개발을 앞둔 골목시장의 이야기를 함께 취재하고, 창작뮤지컬에 출연할 주민 배우를 모집한다고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기동. 떨려서 청심환 두 알 먹고 갔기-동!

요즘 동네 곳곳에서 재밌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동이가 추천하는 곳이 있다면요?

공릉동 카페 '로컬컨시어지'에서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국악&클래식 공연이 주말마다 열린다는데 같이 보러 갈래기동? 아니면 중계동 백사마을을 그리고 기억하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펜드로잉 클래스에 참여해볼기동? 선선한 가을날에 백사마을을 눈과 마음 속에 담는 답사도 함께 갈 예정이기동.

생활문화 앰배서더답게 빠지는 곳이 없네요. 기동에게 '생활문화'란?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며 연결되는 예술 활동을 즐기고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과 교류하면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동!

10월에 생활문화축제가 열리는군요! 아띠가 응원할게요. 축제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요.

병아리 인턴이지만, 생활문화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기동이로써 모두가 즐겁게 문화로 놀고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거기동! 2023 노원생활문화축제 「모두의 놀터」에서 기동이랑 같이 놀자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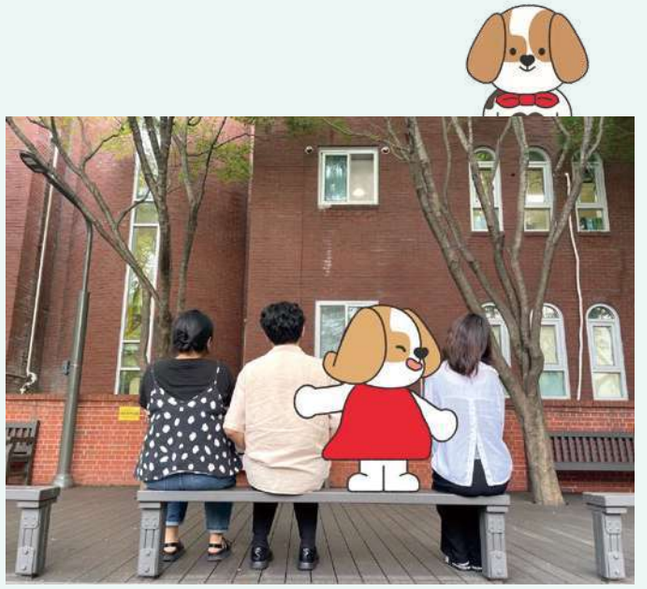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 총괄 은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진흥부의 네로 이은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형 생활문화 프로그램 13개를 운영하고, 노원구 첫 생활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 총괄 담당자입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소처럼 일하나 싶다가도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뿌듯해하는 스스로와 이해충돌 방지하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동이 제작 배경이 궁금해요.

원래 귀여우면 다들 한 번씩 관심을 두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생활문화 사업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오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웃기웃 동네탐방대에서 한 글자씩 따온 '기동'이라는 이름을 들고 이사장님을 찾아갔을 때 젠더감수성에 대한 조언을 주셔서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긴 논의 끝에 '이만한 이름이 없다. 기동이라는 이름이 남성적이라는 것도 어쩌면 편견이야!'라는 우리만의 시원한 결론을 냈어요. 대신 작화할 때 성별의 구분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동이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지역에서 열리는 첫 생활문화축제라니, 살짝 스포일러 좀 부탁드려요.

우리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탐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즐거운 피크닉데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여유로운 가을 나들이가 되었으면 해요.

모두의 생활문화 PM 누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진흥부 생활문화 PM 최누리입니다. 5월부터 노원의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꽤 많던데, 어려움은 없나요?

참여자일 때는 몰랐는데, 한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처럼 많은 손길과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목공방 우크반에서는 목공 크루 프로그램이 8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목공 기초부터 프로젝트 활동까지 전문가 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이후에도 우크반의 크루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로컬랩은 8월 말, 소극장으로 변신하여 '한여름밤의 카페극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9월 첫주에는 국악공연, 둘째 주에는 클래식 트리오 공연으로 가을밤을 채울 예정입니다. 공예주간에는 로컬랩 입주작가들의 공예 클래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했으니, 올해는 풍년이지 않을까요!

생활문화 축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생활문화축제는 모두의 생활문화 PM 면접을 보던 날부터 소문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동물? 같은 어렴풋한 존재였어요. 그동안 월간 기웃기웃 모임도 하고 여러 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노원의 생활문화에 대해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10월 21일 축제를 마무리하고 보람차게 잠들 그날을 기대하며! 많관부♥

모두의 생활문화 PM 현근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극단 기적'에서는 월계동 골목시장 이웃의 이야기를 담아 뮤지컬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열정으로 모인 시민 여러분이 직접 배우가 되어 무대에 설 예정이에요. 10월에 있을 '모두의 놀터' 축제에서 피날레처럼 마지막 순서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죠. 여러모로 떨림과 설렘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앞으로 극단 이름처럼 놀라운 '기적'을 자꾸 만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모두의 놀터'에 함께하는 '동네책방'에서도 저마다의 특색 있는 모임들을 시작해요. 책인감에서는 작가님과 함께 본격적인 소설 쓰기 모임을 할 예정이고, 지구불시착에는 기웃기웃 주변 동네를 탐방하고 여행기를 쓴다는데,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방 봄에서는 문학 장르별로 활발한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문학 토크도 하고, 또 직접 쓰고 그려 보는 창작의 시간도 열리는데요, 소식만 봐도 벌써 넉넉한 여름… 그리고 왠지 풍성한 가을이 느껴져요!

10월에 생활문화축제가 열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마디 부탁드려요.

모두의 생활문화 활동을 시작하며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축제예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와글와글 함께 놀 수 있는 현장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앰배서더 기동이와,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훌륭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레는 마음이 새록새록 솟네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기동이처럼 더 활발하게 뛰어다닐 계획입니다!

사라질 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

시각예술지원사업 선정 작가 4인 인터뷰

알차고 즐거운 문화생활이 쏟아지던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풍부하고 다채로운 작품들을 보여줄 4명의 작가들을 만나보았다.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재료와 방식을 선보이는 작가들, 이들이 담고자 한 이야기와 관객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들어보자.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설학영(어제)·이찬희, 최혜수, 이준옥, 후연

설학영(어제)

설학영(어제) <the light series>

설학영(어제) <금방 사라질 순간들>

설학영(어제)·이찬희

올해 노원문화재단의 2023 시각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건가요? 노원구와의 인연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방 사라질 순간들을 포착해 기록하고 있는 설학영(어제)과, 페인트마커로 일상을 표현하는 이찬희입니다.

설학영 노원구는 북서울미술관과 문화재단 내에 있는 노원아트갤러리, 저희가 전시하게 되는 문화공간 정담까지 보고 싶은 전시가 많아서 자주 방문했었답니다. 더불어 작업실을 노원구 근처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찬희 2019년 가을, 중계동 근처를 산책하다 아파트로 가득 찬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골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사마을을 처음으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해 마음이 지칠 때면 휴식을 위해 백사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백사마을은 서울에서 보기 힘든 낮선 풍경이란 점에서 이색적인 산책코스입니다. 이제는 재개발로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아쉬울 따름이지만요.

이찬희

이찬희 <백사마을의 밤>

이찬희 <서울1, 서울2>

설학영 작가님 작품은 오일 파스텔로 작업했다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더라고요. 일 파스텔이라는 재료의 특징과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일파스텔은 섬세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재료에요. 연필이나 붓처럼 날카롭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연필이나 붓보다 그리는 대상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재료와 순간에 대해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일파스텔의 투박함이 오히려 날 것 그대로의 '순간'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 '순간'을 정제하듯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오일파스텔의 매력입니다.

이찬희 작가님은 사진 찍은 듯한 세밀한 작품을 점묘화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노트에 직접 점을 찍는 행위에 집착하는 스스로를 발견한다고 하셨는데 그 행위와 결과물인 작품 사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업시간이 길어지면 작품에 담으려던 마음과 이야기가 처음의 의도와 달리 변질될 수 있고, 심도도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매번 작품에 담은 처음과 끝의 의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줄이고 작업하는 행위를 관점으로 삼아 작업하고자 합니다. 작품에 의도가 짙지 않아 생각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벽지 같은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작품의 의도는 없고, 작가의 의도만 존재합니다. 작품을 멍하게 봐주고 자신의 경험을 연상시키는 '딴생각'을 해주길 바랍니다. 편하게 보고 편하게 생각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는 언제 어디서 개최될 예정인가요? 전시의 주제나 관람객들이 집중해주었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화공간 정담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시 주제는 '일상 속 특별한 순간들 찾기'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희는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순간들을 천과 종이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전보다 일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최혜수

최혜수

올해 노원문화재단의 2023 시각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원래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건가요? 노원구와의 인연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상 오브제와 금색, 시멘트를 가지고 삶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마주한 경험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최혜수 작가입니다. 노원구 근처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들르곤 해요. 노원역 4호선과 7호선 갈아타는 길목에 설치된 미디어 작품을 보고 노원구에서 꼭 한번 전시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Playground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물건들을 모아 붙여 따개비라는 이름의 작품 시리즈로 만드신 걸 보았어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착안하셨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일상 사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가는 중에 문득 바닷바위에 따개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삶과 죽음, 이상과 현실 사이 어느 한 끗에 걸쳐 살아가는 나와 우리 자신 같았어요. 세상에 태어나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순수 인간 위에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삶의 순간들, 형용할 수 없는 무수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가잖아요. 결국 이 세상 속 유일무이한 '자신'이라는 오롯한 존재를 이룬다는 생각이 들면서 각 사람의 삶과 존재의 형상을 따개비를 모티브로 해서 표현하게 됐어요.

Crack Crack

올해 지원을 통해 개최되는 전시는 언제, 어떤 주제로 진행될 예정일까요?

오는 9월 6일(수)부터 10월 4일(수)까지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상 가운데 마주한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10월 25일에는 김포에 위치한 시카 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어요. 각자의 삶의 여정을 응원하며 위로하는 전시가 될 거예요.

따개비

따개비

노준아

파도가 높게 치는 날(2023) Oil on cnavas, 72.7×60.6cm

두 쌍의 덩어리(2023) Oil on Canvas, 72.7×91cm

잘리는 머리카락 자라나는 풀(2017) Oil on canvas, 45.5×53.0cm

이준옥

올해 노원문화재단의 2023 시각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원래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건가요? 노원구와의 인연을 들려주세요.

이번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전시에 참여하게 된 미술 작가 이준옥입니다. 저는 바로 옆 동네인 강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4~5년 정도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원을 마치고 집까지 걸어서 퇴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사계절을 경험하며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걷다 보면 달라지는 풍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풍경들은 제 <밤 풍경>(2018) 연작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물을 그린 작품 또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단 인체의 일부만 표현된 조각상을 표현한 작품들이더라고요. 이렇듯 조각이나 사물에 끌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려내는 사물과 조각은 현재의 제 시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원래 가졌던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어딘가 유실되거나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 역시 제가 대상을 떠올릴 때 강렬하게 남은 기억의 파편을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그려낼 때 예전에는 기억을 더듬어내느라 습관적으로 사진 이미지에 의존했는데요. 사진을 참고하다 보면 그 사물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순 있지만, 거기에 제가 빠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객관적인 사물의 형태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그때의 감각을 제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소망도 들려주세요.

최근에 동료 작가와 함께 풍경이 좋은 곳으로 작업실을 이사했는데요. 작업실에 각자의 작품을 전시하여 오픈 스튜디오도 진행했습니다. 홀로 작업과 씨름하다 보면 금방 지칠 때가 있는데 동료 작가와 함께 재미있는 예술 활동들을 기획해보고, 다양한 매체를 다루면서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함께 꽃과 도자, 그림으로 콜라보하는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연

올해 노원문화재단의 2023 시각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원래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건가요? 노원구와의 인연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인팅과 조형 작업을 하는 후연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노원구는 성인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 생활을 시작한 곳이에요. 7년 정도 지내게 되니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노원문화재단 선정 결과가 개인적으로는 무척 의미가 있었어요.

그림에서는 주로 웃고 있는 소녀가 등장해요. 이 소녀는 작가님을 표상하고 있는 걸까요?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과거엔 저를 투영한 자화상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웃음' 또한 진짜 '나'를 감추는 가면이자 한편으론 드러내고자 하는 모순적인 장치이고,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오는 상징적인 기호였어요. 거기에 대상은 저와 제일 가깝고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여성'과 '신체'였고요. 결과적으론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여성'의 이미지에 반(反)하고 싶었어요. 미에 대한 기준이나, 아름다움, 여성스럽다는 표현의 의미나 저 스스로조차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과 시선을 깨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작업을 통해 단순히 저라는 개인과 저의 내면을 표상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의 여성이나 인간으로 시선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소망도 들려주세요.

저는 현재 지속가능한 것과 신작을 위해 꽤나 애쓰고 있습니다. 데뷔전 이후 어느덧 6년 차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를 점검하고, 작업에 변화를 시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성장하고 변화된 작품들을 통해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연

Triangle, 2018

이상한 가게(2015) 조형 작품

Welcome to the weird world(2015) Silk screen

그들은
어떤 색의 글자를 쓰고
어떤 빛의 음표를 그릴까

인문학북콘서트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
소설가 천선란과 싱어송라이터 박소은

노원구의 대표 인문학 콘텐츠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의 2회차 공연이
지난 8월 19일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올해의 마지막 인문학북콘서트는 SF를 통해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지나쳐 가는 존재들을 사유하고, 인간다움의 의미를 찾아가는 천선란 작가와
문학적 감성이 담긴 따뜻한 노랫말로 관객들을 위로하는 가수 박소은이 함께했다.

글. 김윤지(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사사로운 것을 되새기는 사람들

2021년 8월 '보편적인 청춘의 문장'을 시작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인문학북콘서트는 2021년에 총 3회차 진행됐다. 2022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총 6회차 진행됐고, 올해는 지난 6월과 이번 8월 총 2회차로 노원구민들을 만났다.

인문학북콘서트는 일상을 살며 지나치기 쉬운 '삶, 이웃, 가족, 꿈' 등 보편적 가치를 인문학 토크와 공연으로 풀어낸다. 그동안 시간이 안 맞아 놓쳤는데, 이번에는 천선란 작가가 온다고 하여 미리 짬을 냈다. 진행은 문학평론가 허희가 맡았다. 그는 공연장의 '향'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었다. 오늘 콘셉트에 맞게 향까지 신경을 썼다는데, 익숙한 듯 낯선 그 향의 정체를 바로 알기는 힘들었다. 진행자가 '교보문고의 향'이라는 정답을 알려주자 아, 하며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들렸다.

파랑 소설가, 천선란

천선란 작가는 2019년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천 개의 파랑》으로 장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았다. 그 소설을 읽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작가의 따스한 시선 때문이었다. 그리고 통속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지 않게 풀어내는 걸 보며 내공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작가는 의외로 소설가보다는 영화감독을 꿈꿨었다고 했다. 어쩌다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 왜 SF 장르로 들어섰는지 등 작가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흥미로웠다. 작가는 한계가 없고, 정해진 것 없이 자기가 만드는 만큼 확장되는 SF 세계를 좋아한다고 했다. 또한 자기는 SF라고 하면 <A·I>나 <E·T>가 떠오르며, 이 때문에 SF는 언제나 위로의 영역이었다고 말했다. 어쩌면 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는 작가의 왼쪽 팔에 새긴 문신과도 결을 같이 했다. 우주, 바다, 식물, 새.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동물이 주류가 되고,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지구를 꿈꾸는 작가라는 설명이 이해되는 지점이었다.

《천 개의 파랑》과 최근 출판한 《이끼숲》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눴다. 《천 개의 파랑》은 공모전에 낼 생각으로 기획한 것이지만, 억지로 만들어 낼 수 없어 본인을 반영했다고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이 있다는 점과 꿈을 포기하려 했지만, 꿈꾸고 싶은 자기 심정을 담아 썼단다. 《이끼숲》은 지하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세 개의 단편이 수록된 연작소설집인데, 인물이 인물을 구하는 이야기다. 작가가 직접 낭독해 준 소설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바위틈에도 살고, 보도블록 사이에도 살고
멸망한 도시에서도 살 수 있으면 좋잖아.
고귀할 필요 없이, 특별하고 우아할 필요 없이
겨우 제 몸만 한 영역만을 쓰면서 지상 어디에서든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 햇빛을 많이 보기 위해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물을 마시지 못해 메마를
일도 없게. 그렇게 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시시하겠지만 조금 시시해도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천선란 작가는 자기의 색깔을 파랑이라고 했다. 파랑은 《천 개의 파랑》에서처럼 누군가 구하는 희망찬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작가의 다른 책 《노랜드》에서처럼 외롭고 우울한 느낌도 있다. 천선란 작가는 파랑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야기로 만든다.

갈색 음악가, 박소은

싱어송라이터 박소은은 2015년 '슈퍼스타K 7'로 주목받았다. 2016년 제27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2017년 디지털 싱글 앨범 <그믐달>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박소은과 천선란, 두 창작자의 공통점은 팔에 문신이 있다는 점이었다. 박소은은 왼팔에 어릴 때 자신과 할아버지 등 가족을 새겼고, 오른팔에 발표한 앨범 이미지를 새겼다.

박소은은 안 좋은 감정도 '괜찮다.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느낀다.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한다. 긍정적인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진행자는 박소은에게도 자신의 색이 무엇인지 물었다.
박소은은 갈색이라고 답했다. 이는 평소 자기가 생각하는
'변치 않는 사람'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나무, 흙, 땅 등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들,
박소은은 그 갈색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랐다. 차분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 모습은 믿음직하고 단단해 보였다.

박소은은 문학과 가까운 6곡을 준비해 왔다. 전부 깊이 있는 가사가 아름다운 멜로디에 얹힌 섬세한 음악이었다. 하지만 앙코르로 부른 <고강동>은 이전과 다르게 신나고 생활감 묻어나는 가사라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소설가와 음악가는 일상을 생생하게 살아야 한다. 사사로운 것에 의미를 찾고, 잊힌 것들을 발굴해야 한다.

예술가들은 우리에게 쉼표를 제시하고 지금 발밑을 보라고, 주변을 둘러보라고 넌지시 말을 건넨다.

그들의 부드러운 음성은 지각을 깨우고 머리를 식히고가슴을 뛰게 만든다. 그들의 작업은 사사로운 것들을 예사롭지 않게 느끼게끔 만든다. 이런 기회가 계속되길 바란다.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

2회차 | 나의 색, 우리의 빛

2023.8.19(토) 14:00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테이블 인형극: 노원이 깔아주는 상상의 시간

2023 노원어린이극장 기획공연 <더미러&그것 참 좋타!>

인형극은 표현하고자 하는 범주에 있어 생물, 무생물을 초월하여
관객 앞에 움직임으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가치가 존재한다.
8월에는 이러한 인형들이 테이블 위에 움직이는 '테이블 인형극'이 노원어린이극장 무대에 올랐다.
무대보다 더 좁고, 한정된 '테이블'이라는 공간 위에서 더욱 농밀한 호흡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노원이 깔아주는 그 상상의 시간을 노원어린이극장 기획공연 <더미러&그것 참 좋타!>를 통해 만나보자.

글. 조혜인(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페이퍼문 인형극단 <더미러>

<더미러>(원제: <Kacacaka: The Mirror>)는 귀를 간질이는 실로폰 음악으로 어린이의 순수와 꿈이 몽글몽글 피어나듯 관객을 맞이한다. 공연을 알리는 시작종이 울리자 어린이 관객의 아낌없는 박수가 이어진다. <더미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거울'이 극을 일관되게 끌어가는 장치 역할을 했다. 거울은 일상에서도 '나'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기능하는데, 마치 테이블 위에 연출된 오브제 하나하나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테이블이라는 어쩌면 무대보다 더욱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생명력을 부여받아 움직이는 주인공 '카카' 인형과, 카카의 삶을 이루고 있는 집과 거리의 풍경을 세심히 들여다볼수록 극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된다.

어린이 관객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장면은 어린이 관객을 직접적으로 거울에 비추는 순간이었다. 인형 조종자가 손거울을 들고 객석으로 내려와 어린이들의 얼굴을 비출 때, 거울과 거울 속에 비친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 "저도요!" 하면서 자신의 얼굴이 비치길 바라는 어린이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다. 카카가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꿈과 상상을 펼쳤던 것처럼, 어린이 관객 한 명 한 명이 카카와 같이 자유로운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점을 표현하는 대목이었다. 또한 인형의 움직임을 뛰어넘어 인형 조종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돋보여 어린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목은 바로 '축구 장면'이다. 주인공 '카카'가 즐거이 축구 하는 장면을 그림자극 형태로 연출하여, 인형 조종자가 축구공 인형을 들고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추어 공을 여기, 저기로 즐거이 튀긴다. 이때, 어린이 관객은 제각기 "우와!" 하면서, 장면이 보여주는 스펙터클과 집중력에 흡수된다. 카카의 축구 놀이는 결국 집 안의 큰 거울을 깨는데, 거울이 있던 자리는 블라인드 형태의 창문으로 수리가 되고, 블라인드 겹겹의 틈으로 카카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끼워지며 따스함을 건넨다.

<더미러>는 인도네시아의 '페이퍼문 인형극단'(Papermoon Puppet Theatre)이 선보인 작품이다. 인형 조작자 두 명이 인형을 다루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관객의 호흡을 쫀쫀하게 하여 인형의 생명력과 관객의 생명력을 교환한다. 또한 작고 세심하게 제작된 극의 모든 요소들은 어린이들에게 무대라는 세계를 세밀하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해주며, 카카의 상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공연의 시간은 온전히 어린이 관객을 거울처럼 투영한다.

극단 문(門) <그것 참 좋타!>

<그것 참 좋타!>는 방정환이 창작한 노부부 이야기를 서울사투리로 들려준다. 어린이 관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이야기 전개 방식에 있어서 인형 조종자 박영희가 해설자의 역할을 겸하며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주는 면도 인상 깊었다. 가로로 긴 형태를 한 테이블 위에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재활용품들이 노부부 인형으로, 노부부가 만나는 말, 썩은 능금 등으로 변신한다. 할아버지는 장터에 나가 자신의 소유였던 말을 썩은 능금으로 바꿔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나 화낼 법한 상황에서 할머니는 "당신이 하는 일에는 낭패가 없으니"라며 남편에 대한 신뢰와 기쁨을 보여주는 모습이 삶의 교훈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감동 또한 전해주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인형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공연의 과정으로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악사의 음악과 함께 단순하고 명쾌하게 인형을 만들어 어린이 관객의 호기심을 이끌어낸다. 말, 소, 양, 거위, 닭과 같이 동물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형이 인간 배우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표현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생활에서 버려진 물건들에 생기를 입혀 극에서 역할을 한다. 친근한 사물에 더해지는 새로운 생명력이 '참 좋다!'고 말 할 수 있는 공연이다.

본 공연을 이끌어나갔던 박영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노원의 어린이 관객과 함께했던 소감을 나눴다. 인형이라는 어린 시절의 장난감이 주는 친숙함은 인형 조작자를 통해 어린이 관객과의 교감을 증폭시키고, 노부부의 '애정'이라는 정서가 담겨 있던 스토리텔링이었던 만큼 노부부와 같은 어린이의 먼 미래를 상상하게끔 하는 면이 돋보였다.

나가며: 노원, 상상력 넘치는 삶의 테이블을 펼치게 하다

노원에서 만난 테이블 인형극 <더미러&그것 참 좋타!>는 두 공연 모두 테이블을 사용해 공간을 구축해 극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더미러>의 인형은 종이로 제작되어 장인의 기술이 돋보였다면, <그것 참 좋타!>는 버려진 물건들을 활용해 심플한 방식으로 인형이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두 공연의 인형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매력을 지녔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테이블 인형극만이 지닌 밀도 높은 공기를 더욱 잘 느끼기 위해 노원의 다른 공간에서도 극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원어린이극장은 프로시니엄 형태의 대극장이다. 테이블 인형극이라는 관객 오감의 섬세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예술은 대극장이 지닌 호흡과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테이블 인형극을 아동극이라는 장르뿐만 아니라, 인형극 자체의 독자적인 예술로 인식하고 그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층을 다시금 발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어린이극장에서 테이블 인형극이 선보였다는 점은 노원에서 남을 획기적인 시도이다. <그것 참 좋타!>를 관극한 어린이 김도윤(13)은 "말과 같은 소품들이 만들어진 모습이 흥미로웠으며, 노래가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남겼으며, 강우진(9) 또한 "사물을 만드는 방법이 창의적이었어요."라고 했다. 김서윤(8)은 <더미러>와 <그것 참 좋타!> 두 공연 모두 "재밌었어요."라고 말하며 공연에서 느낀 흥미를 표현했다. 이처럼 어린이 관객에게 사물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야말로, 노원이 자라나는 어린이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력 넘치는 삶의 테이블을 넓게 펼쳐볼 기회를 선사하는 바다.

더미러&그것 참 좋타!

2023.8.17(목)~18(금)

노원어린이극장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중랑천환경센터와 함께하면 나도 장금이!

된장, 고추장, 간장 그중에 제일은 내가 담근 고추장~

환경이라는 단어에서 주로 연상되는 것은 자연, 생태계,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생물 다양성, 탄소 배출, 재활용, 녹색 기술 등이 있다. 여기에 중랑천환경센터는 환경에 음식을 연결 지었다. 식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놀이, 교육과 함께 저탄소 음식 만들기를 병행하거나, 우리 고유의 장을 손수 담가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시기별로 막장, 맛간장, 고추장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장 담그기도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 한국인의 맵부심을 자극하는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수업에 직접 참여해 보았다.

글. 사진. 이권화(노원문화PD 1기)

저탄소, 친환경 음식을 만들고 시식할 수 있는 중랑천환경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재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 고추장 재료, 너희가 궁금해!

<달달 구수 조재희의 장 담그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랑천환경센터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수강신청 경쟁률이 높은 만큼 교육장을 찾은 수강생들의 모습에서 열의가 느껴졌다. 수강생들의 연령대와 수강하게 된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장과 젓갈 등 '엄마 찬스'를 줄여보고자 신청한 가정주부부터, 본인이 담그는 장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또 다른 노하우는 없는지 살펴보시러 오신 분까지 이유와 목적은 달라도 모두 수업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집중도를 갖고 있음이 느껴졌다.

선생님의 우리 장에 대한 설명은 강의 내내 거침없고 명쾌했다. '장(간장, 된장, 고추장)'은 주원료인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 양념을 뜻한다. 간장, 된장, 고추장이 대표적이다. 왜 우리가 직접 장을 담가 먹는 것이 좋은지, 장을 담그는 시기와 이유는 무엇인지, 재료를 선별하고 구매하는 요령까지. 모두가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해 지금까지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흥미로웠던 내용은 고춧가루가 만들어지는 과정 및 구별법, 소금의 종류, 간수 빼는 법과 용도 등 장을 담그는 데 필요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들이었다.
이론 수업이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음에도 수강생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강사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궁금했던 재료들에 대해 질문도 하고 강사님의 노하우가 담긴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추장을 만나기까지 단 20분: 고추장 나와라 뚝딱!

고추장은 주로 가을과 겨울에 담그는 전통적인 양념으로, 고추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만어진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담그기 시작하며, 지역, 시기, 각자의 취향에 따라 부재료를 달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다.
고추장에 넣을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장을 만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 진행된 레시피는 여름에도 쉬이 상하지 않고, 일거리를 덜 수 있도록 엿기름 대신 조청을 사용해 장을 만들었다.
재료에 대한 이해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장을 담그는 시간이다. 먼저 물을 뜨겁게 끓여 양푼에 붓고, 조청을 수분의 열기로 녹여가며 양푼에 넣었다. 순차적으로 정량의 고춧가루, 천일염, 메줏가루를 넣으면서 재료들이 잘 녹아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준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료들을 섞는 방향이다. 이리저리 돌려가며 섞는 것이 아닌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양푼 바닥까지 싹싹 저어주어야 공기층이 생기지 않아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지 않고 발효에도 좋다.
수업은 준비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누구나 쉽게 장을 담글 수 있도록 개발된 레시피로 진행된다. 환경을 고려하면서 좋은 식재료로 맛있고 건강한 장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달달 구수 장 담그기' 수업에 참여하여 직접 체험해 보기를 추천한다.

고추장 만드는 과정

1 뜨거운 물

2 조청

3 고춧가루

4 천일염

5 메줏가루

6 고추장 완성!

집중해서 듣는 수강생들

N개의 서울 노원왓수다 문화PD

우리 동네 보호수에 소원 한번 빌어볼래?

노원왓수다 문화PD 프로젝트 기획전시 <은행마을 소원나무>

크고 작은 건물들로 가득 찬 중계동 곳곳에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보호수다. 적게는 118살부터 많게는 무려 677살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중계동의 역사를 지켜본 보호수들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개인적인 바람을 이루어주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특히 중계동의 옛 마을인 은행마을에서는 약 100여 년 전부터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자 나무 신령들에게 도당제를 지냈으며,
현재는 2년에 한 번 음력 10월 초에 해당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중계권역의 문화PD인 김주영과 전은진은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문화공간 정담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마을의 문화유산인 도당제와
일곱 그루의 보호수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글. 사진. 김주영·전은진(노원문화PD 3기)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호수의 모습

이번 전시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은 미술가와 영화감독의 시선으로 담아낸 보호수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다양한 재료를 통해 시간이나 경험, 기억의 중첩을 표현하는 김지혜 작가는 중계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 부근에 위치한 은행나무를 묘사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용문사에서 얻어온 작은 나뭇가지가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폐박스와 소포지 등을 쌓고 겹쳐 '여리고 약한 생명이 성장을 통해 단단하고 강인한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표현한다. 또한 전시장 한편에서 상영될 안용우 감독의 단편 다큐멘터리 <나무가 나에게>는 도당제를 진행하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도당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한다.

함께 읽어가는 보호수의 이야기

이번 전시의 두 번째 포인트는 보호수에 담긴 이야기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 그루의 보호수들은 그 모양새와 역사도 제각각이다. 전시를 기획한 두 명의 PD는 각기 다른 보호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와 노원문화원에서 연구된 기록들을 바탕으로 보호수에 얽힌 이야기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또한 캡션에 담긴 QR코드를 통해 건네받는 수호령의 메시지는 이번 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재미이다.

전시를 통해 전시장을 방문한 이들이 나무에 시선을 맞추고, 가끔은 사소한 하소연과 비밀스러운 염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은행마을 소원나무

2023.8.23(수)~9.1(금)
10:00~22:00
일요일, 월요일 휴관

문화공간 정담

N개의 서울 노원왓수다 문화PD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을 만든 예술가들을 만나다

아직 백사마을을 지키고 있는 이들, 104 마을예술가의 초대

1967년 서울시 노원구 불암산 밑자락에 강제 이주 마을이 생겼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중계본동 104번지 백사마을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린다.
고층 아파트로 가득한 익숙한 도시의 풍경과 사뭇 다른, 스러져가는 오래된 건물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달동네의 모습은 현재 서울에선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2024년 재개발을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백사마을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까지 이곳과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하고자 한다.
성장과 변화의 중심 서울에서도 꿋꿋이 백사마을에 남아있던 20가구 남짓한 사람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백사마을을 하나의 작품으로 칭하고,
그 유구한 역사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 온 주민들을
'백사마을을 만든 예술가들'로 묶어내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글. 사진. 이혜원·정성혜(노원문화PD 3기)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QR 매핑투어를 통해 새롭게 아카이빙되는
백사마을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백사마을을 지키고 있는 마을예술가(주민)들의 이야기'로 정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지 고민했다. 먼저, 여전히 백사마을에 살거나 그를 터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백사마을의 주민들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마을 곳곳에 그들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를 찾아내기로 했다. 백사마을을 단순히 방문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겠지만, 이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특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이 마을예술가(주민)들의 인터뷰는 단편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각 인물의 에피소드가 담긴 특별한 장소를 활용한 백사마을 QR 매핑투어를 진행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구현 방식을 결정했다.

태양 빛이 강렬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매주 백사마을을 방문해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주민들을 만나고, 섭외 및 사전인터뷰를 진행하며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화에 담길 마을예술가 4명의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백사마을을 탐방하는 QR 매핑투어 역시 기획 중이다. 특별히 이번 매핑투어를 위해 104예술창작소 입주 작가 4인과 협업해 다큐멘터리 속 에피소드를 주제로 한 작품을 새롭게 제작하기로 했다. 작품과 글로 다시 태어난 마을예술가들의 이야기는 해당 추억의 장소 및 백사마을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함께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각 에피소드를 짧은 클립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매핑투어 기간 중 문화PD가 해설자가 되어 관람객과 함께 백사마을 추억의 장소 곳곳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매핑투어를 차례로 관람한 이들은 영화 상영회 장소인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다다르게 되며, 그곳에서 매핑투어에 활용된 작품 원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번 문화PD 104권역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을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아카이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월 말 예정된 백사마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및 QR 매핑투어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N개의 서울 노원왓수다 문화PD

하계동 한글비석 한글사랑축제에서 만나요!

하계동골마을근린공원 <한글사랑축제>

노원구 하계1동 12번지에는 특별한 비석이 하나 존재한다.
서울시립과학관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돌계단 언덕위에 세워진
'이윤탁한글영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비석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국내에 존재하는 한글비석 중 유일하게 건립연대를 알 수 있는 이 석비는
2007년 9월 보물 1524호로 지정되었다.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글. 사진. 유명희·정유미(노원문화PD 3기)

지극한 효심이 담긴 '이윤탁한글영비'

녕흔비라거운사ᄅᆞᄆᆞᆫ지화ᄅᆞᆯ니브리라
이ᄂᆞᆫ글모ᄅᆞᄂᆞᆫ사ᄅᆞᆷᄃᆞ려알위노라

위에 글은 '이윤탁한글영비'에 적혀있는 글이다. "신령한 비석이므로 훼손하는 사람은 재화를 입으리라. 이것을 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알리노라"라는 뜻으로 당시의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한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경고문으로 쓴 것이라고 한다.

이 비석은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이 부친인 이윤탁(李允濯)의 묘를 모친인 고령(高靈) 신씨(申氏)의 묘와 합장하면서 1536년(중종 36년)에 묘 앞에 세운 묘비이다. 이윤탁의 묘는 원래 지금의 태릉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윤씨의 능을 조성하면서 이장을 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때 부모의 묘가 또다시 옮겨지는 불행을 겪지 않도록 이런 경고문을 써서 세운 것으로 본다. 이 묘비에는 부모님의 묘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효심이 깃든 글귀를 세긴 조선 전기의 유일한 한글비석으로, 당시 한글이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가를 증명하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 비석외에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부터 구한말까지 만들어진 한글비석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이 문화유산을 알리고자 한글사랑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는 축제 <한글사랑축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글날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최초의 한글비석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다섯 개의 한글 비석이야기를 찾아내어 공원에 전시하도록 준비하고, 주된 프로그램인 한글퀴즈대회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과 비석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도록 캘리그래피와 호패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가족과 함께 퀴즈를 맞추며 화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체험행사는 노원구 마을교사들이 함께하며, 퀴즈대회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축제 시작 전 하계동에서 활동하는 태권도단의 시범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여름방학의 막바지, 온가족이 함께할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한글의 소중함을 알아갈 시간이 될 <한글사랑축제>를 찾아가보자.

한글사랑축제

2023.8.27(일) 12:00
하계동 글마을근린공원

Autumn Moolight Festival

10. October

가을 달빛 축제 속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에도, 단풍을 보러 나들이를 가기에도 좋은 10월,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연휴를 지나고 나면 노원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한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노원구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원달빛산책과 탈축제는 이제는 각각 빛조각페스티벌과 댄싱노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온다. 책과 함께하는 북페스티벌도,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모두의 놀터도 있으니 그야말로 풍요로운 가을 축제가 결실을 맺는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올 가을 노원은 축제 종합선물세트!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는 계절. 거기에 더해 올해 노원의 가을은
줄지어 이어진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독서의 계절답게 낮에는 책을 읽다가
밤에는 달빛 아래에서의 산책을, 그러다 흥이 나면 춤을 추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신나게 놀고, 먹으면서 보내는 나날. 이 가을, 노원에서만 허락된 풍요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노원문화재단

모두를 위한 빛조각페스티벌, 노원달빛산책

올해도 찾아온 노원의 대표 축제. '빛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찾아온 빛조각페스티벌 노원달빛산책이 10월 13일(금)부터 11월 5일(일)까지 총 24일간 당현천에서 개최된다.

이이남, 박봉기, 조영철 등 유명 작가들과 달빛산책 최초로 해외 작가들을 초청해 기존보다 더 크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노원구 관내 작가들 그리고 주민 참여형 작품들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매년 진행하는 구민 도슨트 양성 과정인 달빛해설사에 올해는 특별히 장애인 도슨트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유니버셜 축제를 만들고자 했다.

특히 올해에는 산책 구간 중간중간 쉼터 3개소를 운영하며, 제각기 다른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 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0월 13일 개막행사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시민합창단과 클래식 콘서트가 개최되어 축제를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거리 위에서 놀자, 댄싱노원!

노원구의 대표 브랜드 축제였던 노원탈축제가 2023 노원거리페스티벌 '댄싱노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찾아왔다. 기존의 탈축제에서 다양한 예술단체의 거리 퍼포먼스를 포괄하기 위한 시도이자 새로운 지역문화 브랜드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변화이다.

노원구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동아리들은 댄싱퍼레이드뿐 아니라 패션쇼, 페스타를 통해 경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구민합창단과 시민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퍼레이드존뿐 아니라 프린지 무대로 청년테마존, 가족테마존, 문화의 거리 등 축제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콘텐츠와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나들이 나온 가족들을 위한 어린이극과 가족거리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양일 모두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가 등이 판매하는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페어(브랜드페어존), 어린이놀이체험(가족테마존)과 예술체험(청년테마존), 그리고 관내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대학문화체험(청년테마존)과 힐링쉼터(청년테마존)까지 남녀노소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댄싱노원은 10월 7일(토)부터 8일(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노원역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 앞 약 555m를 퍼레이드 구간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노원 북 페스티벌

올해 노원 북 페스티벌은 이러한 의미를 잘 담아내기 위해 '사색(思索/四色)' 이라는 주제로 지우 작가의 <나는 한때>, 이현수 작가의 <나는 나답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주제 도서로 선정했다.

길게 이어진 공원은 구역별로 '삶(노원구 한 책 주제 중심)', '샘(도서관, 서점, 마켓 공간)', '숲(숲큐레이션, 체험부스, 버스킹 공연, 강연 등)', '쉼(도서관 체험부스, 리딩인 책 읽어주기)'으로 구분되며, 책을 읽다가 공연을 보고, 강연을 듣는 등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메인 무대에서는 개막과 함께 아프리카 음악과 어린이 합창, 청소년 댄스, 여성 듀오 원셋의 공연이 이어지며,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은 이현수 작가와의 북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다.

버스킹 역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대학교 밴드부터 인형극, 해금 연주와 클래식 기타 연구까지 다양한 음악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체험공간과 전시존, 리딩존에 먹거리까지 하루를 온전히 보내도 충분할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노원 북 페스티벌은 10월 15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원구 상계근린공원에서 개최된다.

문화로 노는 게 뭔지 보여줄게! 생활문화축제, 모두의 놀터

올 가을, 새롭게 선보이는 축제도 있다. 모두의 놀터라는 이름만큼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공연, 전시, 체험, 마켓, 먹거리까지 그야말로 문화로 놀 수 있는 모든 게 있는 곳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만큼이나 테마존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관람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조각을 만들 수 있는 '모두의 예술가', 노원구 생활문화동아리와 청년밴드 '엔분의 일'의 공연이 펼쳐지는 '모두의 스테이지', 책으로 쉼터와 콘서트를 보여주는 '모두의 서재', 알뜰살뜰 귀여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모두의 마켓'과 금강산도 식후경 푸드존인 '모두의 식탁'까지 다양하다.

이렇듯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모두의 놀터는 10월 21일(토) 단 하루,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여성공예센터(아리움) 마당에서 펼쳐진다.

가을 달빛을 추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매년 가을이면 찾아오는 노원구의 대표 축제, 어느덧 4년차를 맞은 노원달빛산책.
당현천을 따라 걸으며 어두운 밤을 밝히는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빛조각들을 바라보다 보면,
왜인지 그해 가을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 축제 기간도, 구간도 더 길어진
올해 특별해진 건 그뿐만이 아니라는 예술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이수

반갑습니다.
노원아띠 구독자분들에게
감독님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원달빛산책 예술감독 이수입니다.
노원아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달빛산책이 처음 개최된 2020년부터
계속 큐레이터를 맡아오시다가
올해는 예술감독으로 참여를 하시지요.
예술감독으로서의 역할은 기존 큐레이터와
어떻게 다른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축제의 형식이 새로워져야 하는 점이 있었죠. 사실 매년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긴 해요. 올해 처음 예술감독을 맡아서 그만큼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달빛산책은 축제를 기획하는 입장으로서는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 축제예요.

노원구청, 노원문화재단, 작가님들, 함께하시는 노원구민들 모두 합심해서 좋은 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 어려움보다는 기쁨이 많고요. 모두의 힘이 없이는 이루기 힘든 일이고, 이런 일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이게 만드는 저희가 재밌어야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잖아요. 그런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올해는 특별히 ‘빛조각페스티벌 노원달빛산책’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죠. 그 이유와 의미가 궁금해요.

달빛산책은 2020년부터 조각가뿐 아니라 전통등작가,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예술성을 더 높여서 서울시 대표 축제이자 국제적 행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어요. 3년을 해오면서 기반을 잘 닦아놨으니까요. 그렇게 달빛산책의 이름에 대해 여러 축제나 미술 기획자들의 의견을 구하러 다녔더니, 어감도 예쁘고 좋은데 너무 동네 축제 같은 이미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회의도 하면서 이름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달빛산책은 단순히 등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빛 조각 작품들이 많은 축제니까 이런 특성을 살려서 빛조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어요.

노원달빛산책도 어느덧 4년차가 되었지요. 작년 노원구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았던 축제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기존과 달리 더 특별하게 준비된 것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올해 여러 시도를 많이 하면서도 가장 새롭고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해외 교류예요. 2월에 직접 대만에 가서 축제 기획사를 컨택하고, 협업하기로 하면서 대만 작가 한 분을 초청했고요. 아폴론 이머시브 웍스라는 미디어아트 제작 업체를 통해서는 티모 헬거트라는 유명한 독일 작가도 한 명 초대했어요. 또, 축제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노원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올해도 노원구 내 학교뿐 아니라 행복발전소나 성민복지관의 장애인 예술가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고 있어요.

이번 축제의 제목이 ‘빛의 연금술’이더라고요. 세부 구간도 ‘물과 생명의 연금술’, ‘대지와 자연의 노래’, ‘조화로운 우주’와 같이 신비롭고 몽환적인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어 궁금해져요. 제목의 의미와 담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물과 생명의 연금술’ 구간을 통해서는 실제로 물이 흐르는 당현천에서 연금술의 기본원소인 물과 생명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대지와 자연의 노래’에서는 흙이 자연을 어떻게 키워가며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줄 예정이에요. ‘조화로운 우주’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주의 조화의 일부분으로 보기를 제안하고요.

달빛산책은 계속해서 구민해설사(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주민들의 참여가 축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달빛해설사나 참여프로그램은 특정한 사람들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모두의 축제를 만들기 위한 시도예요. 구민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형식적으로 가을에 열고 끝나는 축제에 머물지 않고 노원구를 위한 축제가 될 거라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노원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고 노원구민들도 스스로 만들어간 축제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어 살고 싶은 노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제 기간도, 구간도 길어져서 더 많은 관객이 찾아올 것 같아요. 작년에는 60만 명이 찾아왔는데, 올해는 100만을 목표로 삼으셨더라고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럼요.(웃음) 올해는 축제 기간도 더 늘려서 24일을 진행하거든요. 구간을 늘리기도 했고요. 여러 진입로를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는 등 세심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올해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분들까지 알고 찾아오실 거라 생각하고요, 멀리서 오신 분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어야겠죠.

이번 노원달빛산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감독님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참여한 관객들에게는 어떠한 축제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제 나이와 년도를 기억할 때 그 해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들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노원달빛산책에 참여했던 2020년부터는 달빛산책을 기준으로 한 해를 기억해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노원달빛산책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해를 기억하고, 가을의 풍요로움을 기억할 때 노원달빛산책에서의 추억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왜 비가 오지 않을까?
고래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겠어!

노원어린이극장 기획공연 <개굴개굴 고래고래>

지난 9월 8일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극단 즐겨찾기의 <개굴개굴 고래고래> 공연 속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였다.
시작 전에는 어수선했던 아이들의 시선을 배우들이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글. 김윤지(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

조명이 켜지자 군악대 행진곡 같은 음악에 맞춰 검은 옷을 입은 배우 세 명이 나왔다. 그들은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린 빨강, 회색, 노랑 겉옷을 차례차례 입었다. 군무를 추고 현란한 팔 동작을 선보이고 옆돌기까지 하며 공연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렸다.

사막으로 변해버린 숲속 마을. 사슴, 코끼리, 호랑이는 몹시 목이 마르다. 눈도 뻑뻑하고, 어흥 소리도 못 내고, 씻지 못해 냄새도 난다. 축 늘어진 이들 앞에 작은 초록색 개구리, 구르구르가 나타난다. 왜 비가 내리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새까매진 앵무새가 바다에 사는 고래 선생님이라면 알고 계실 거라고 한다. 그들은 고래 선생님을 찾으러 바다로 간다.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고래 선생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는 고래 선생님의 숨구멍이 바다로 흘러온 쓰레기로 꽉 막혔기 때문이었다. 구르구르는 비닐 쓰레기를 뽑아보려고 애쓰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구르구르. 그 울림에 고래 선생님은 속이 간질간질해졌다. 좀 더 힘차게 발을 구르자 고래 선생님이 크게 재채기하고, 쓰레기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 이 틈에 고래 선생님 배 속에 있던 구르구르도 무사히 탈출했다.

고래 선생님은 구르구르에게 소라껍데기를 주며 자기 힘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부르라고 말해준다. 구르구르 덕분에 숲속 마을에는 다시 비도 오고 나뭇잎도 자라나게 된다.

개굴개굴 고래고래

- 2023.9.8(금) 11:00
  9.9(토) 11:00, 14:00
- 노원어린이극장

이렇게 다양할 수가!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인형극이자 그림자극이자 뮤지컬이자 창극이자 관객참여극이었다. 자칫 많은 요소로 산만해질 수도 있었지만, 다양한 요소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느껴졌다. 배우들의 합도 좋아서 그림자극으로 전환될 때 준비할 게 많을 텐데도 극 흐름에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

여러 종류의 인형을 보는 재미도 있었다. 바닷가에 널린 쓰레기로 배를 만들어 바다로 띄우는 장면은 손바닥 정도로 작은 종이 인형을 사용했고, 구르구르가 바다에 빠져 고래 선생님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1미터 정도 되는 개구리 솜인형을 사용해 헤엄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커튼콜 때는 동물들의 얼굴을 커다랗게 만들어 탈처럼 쓰고 나왔다. 각기 다른 인형을 사용해 장면마다 다르게 연출한 점이 눈에 띄었다.

공연은 해피엔딩이지만

아이들은 무대 위 동물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손에 쥔 페트병을 흔들며 '여기 물 있어, 이거 마셔.'라고 외쳤다. 동물들과 구르구르의 모험에 몰입해 숲속 마을에 비가 내릴 때는 에그셰이커를 흔들며 기쁘게 노래 불렀다.

막이 내리자, 아이들은 벌써 끝났냐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무대 위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그대로였다. 쉽고 경쾌한 주제가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흥겨워할 수만은 없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될 테니 말이다.

노원 전 세대가 문화예술에게 받은 가을 선물

2023 노원거리예술제 & 2023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일교차가 벌어지며 해 질 녘이 선선해지는 9월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아래 과기대)에서 9월 9일 토요일,
온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두 개나 열렸다.
바로 <2023 노원거리예술제>와 <2023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다.
특히 과기대 교정 곳곳에 가족 단위로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처럼 전 세대에게 가을의 선물과 같이 찾아온 두 축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

글. 조혜인(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조혜인

서커스 예술 놀이터

2023 노원거리예술제

<2023 노원거리예술제>에서는 세 편의 거리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상상관 앞에서 펼쳐진 공연들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무엇보다 거리 예술가들의 재능과 테크닉이 놀라웠다.
팀 클라운의 <경상도 비눗방울>을 시작으로 버블쇼가 펼쳐졌고, 서커스 디 랩의 <해프닝쇼 '더 쉐프'>는 자영업자의 현실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가져온 서커스 드라마였다.
마지막으로, 크로키키 브라더스 <크로키키 브라더스>는 드로잉 서커스로 경쾌한 브레이크 음악에 맞춰 그림 그리고, 갓 그려낸 그림을 관객에게 선물해 주며 적극적인 소통이 돋보였다.

(위) 해프닝쇼 '더 쉐프', (아래) 크로키키 브라더스

인사하는 오승록 구청장

<서커스 예술 놀이터> 또한 거리 예술가에게 직접 서커스를 배워본 즐거운 기회였다. 접시돌리기, 공 던지기 등 서커스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붕어방 잔디 위에서 놀이하듯 배운다. 교육을 진행한 거리 예술가 '마린보이'는 "아이들이 서커스를 통한 작은 성취감을 맛보길 바라며, 도전하고 성공해보는 경험을 하길바란다"라고 말하며 노원의 어린이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2023 노원거리예술제>는 노원의 거리에서, 노원 사람들과 서커스라는 특화된 장르로 교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노원구의 대학인 서울과기대에서 공연예술이 지닌 스펙터클의 정점이자 뿌리 장르로 봐도 손색없는 서커스 공연 세 편이 이루어졌다. 관객들은 거리 예술가들의 열정에 놀랐고, 노원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연에 새로운 일상을 느꼈을 것이다.

2023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같은 날 저녁, <2023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를 즐기기 위해 서울과기대 종합운동장에 노원의 남녀노소가 모여들었다. 전 세대의 축제로 열린 이번 공연에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했다.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는 노원구 전속 오케스트라로 영입되었음을 알리며 '캐리비안의 해적'으로 무대의 오프닝을 열었다. 발라드 싱어송라이터 경서는 '첫 키스에 내 심장은 120bpm', '바람이 불어오는 곳(원곡: 김광석)', '가을 아침', '밤하늘의 별을'을 통해 어쿠스틱한 감성을 뿜어내었으며, 라포엠은 '더 파이어', '오페라의 유령', '러브 다이브', 'Never Ending Story'를 통해 뮤지컬 장르와 K-POP 재해석을 넘나드는 공연을 선보였다. 국민 트로트 가수 장민호는 '남자는 말합니다', '풍악을 울려라', '신발끈', '남자 대 남자'를 통해 맨크러쉬한 카리스마로 관객을 사로잡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박정현은 무대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P.S 아이 러브 유', 신곡 '그대라는 바다', '달아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원곡: 조용필)', 한국 여성 발라드 대 히트곡 '꿈에'를 열창했다.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경서, 라포엠, 장민호, 박정현의 조합은 클래식, 어쿠스틱, 뮤지컬, 트로트, 발라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을 선물 세트와 같았다. 우리 구민들은 이 가을을 음악이란 선물과 함께 열기 위해 쟁쟁한 티케팅을 거쳐 객석으로 모여들었다.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임지연(53) 씨는 "넓은 운동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좋은 음악들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 가수들만의 특색있는 음색과 가창력을 직접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언급하며 중년의 나이에도 가을의 음악을 즐기던 뜨거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2023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는 노원의 가정들이 한자리에 모여들고, 전 세대의 축제로 거듭나는 가을밤이었다.

2023 노원거리예술제 & 2023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2023.9.9(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시장도 진화한다! 정겨움은 그대로, 거리는 더 가깝게!

시장에서 원데이 클래스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시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친근함이 아닐까?
어릴 때 엄마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며, 배가 고플 때는 군것질도 하던 시장은
단지 장 보러 간다기보는 놀러 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번에 가본 공릉 도깨비시장은 어르신들만 찾는 곳이 아니라, 근처에 자취하는 많은
2, 30대들이 찾는 공간이었다.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시장이 정겹고 구경하기도 좋으니까!
가깝게 붙어 있는 카페와 예쁜 식당으로 유명한 공리단길까지,
도깨비시장에는 예전처럼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다양하게 찾아온다.

글. 문준영(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공릉동도깨비시장, 문준영

도깨비시장의 입구는 사방에 있다. 발길 닿는 쪽으로 걷다보면 금세 시장 골목에 도착할 수 있었다. 주말의 도깨비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고 정겨운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가족끼리 온 시민들은 시장으로 마실 나온 듯 즐거운 표정이었다. 음식뿐 아니라 옷이나 잡화점 가게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시장이라고 하면 역시 생소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

공릉동도깨비시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노력에 이른바 '찾아가는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다. 먼저, 도깨비시장에 있는 유명한 맛집에서 원데이 클래스 행사를 진행했다. 철판 곱창이나 강정 사장님들의 특급 비결을 오직 노원 시민들에게만 공개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장님의 노하우를 전수 받고, 실제로 같이 만들고 먹어보며 더욱 시장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사고파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상인과 시민이 소통하는 시간이 과연 '시장'다운 행사였다.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라이브 커머스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라이브 커머스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인 분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송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통해 상인분들께 직접 질문을 남길 수도 있고, 상품이 마음에 들 경우 배송을 받아볼 수도 있다. 모바일과 배달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시장에서도 그에 맞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다.

방송은 그립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었다.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며 탄생한 프로젝트였다. 공릉도깨비시장은 SNS나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열심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어떤 가게가 새로 생겼고 무슨 도전을 하는지 계속 살펴보고 또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원데이 클래스나 푸드트럭 같은 정보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도 발전한다. 한 곳에 가만히 있는 시장이 이토록 시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상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라도 근처에 올 일이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도깨비시장을 구경하러 오는 것은 어떨까? 당연하지만, 모든 상인들이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공릉동도깨비시장

서울 노원구 동일로180길 53
http://blog.naver.com/gogoma4143
02 976 4143

•–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

노원에코센터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합창'

노원에코리딩

노원에코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진다.
노원구 4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노원에코리딩'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목소리다.

글. 사진. 이현주(노원문화PD 1기)

리딩인은 노원구의 지식정보취약계층,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독서 활동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리딩인 교육을 수료한 뒤 활동가능하다.

'노원에코리딩'은 5명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에코리딩인'이 추천하는 환경동화책을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고 노원에코센터 텃밭과 정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계절 맞는 자연을 체험하는 노원에코센터의 대표 터줏대감 프로그램이다.

(위) 에코리딩 신청 포스터
(아래) 노원에코센터 1층 열린 마루 '노원에코리딩' 동화책 서가

9월 2일도 천사 같은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총 7명의 어린이가 노원에코리딩에 참석했다. 에코리딩인 앞에 모여앉은 어린이들은 종알종알 질문을 시작했다. 에코리딩인은 여러 질문에 친절하고 세심하게 모두 답변해주고는《고라니 텃밭》을 읽기 시작했다.

《고라니 텃밭》의 주인공인 화가 김씨 아저씨는 농부로 텃밭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결국 아저씨의 텃밭은 고라니 텃밭이 된다. 어린이들은《고라니 텃밭》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농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왜 동화 속 고라니는 왜 상추, 쑥갓, 아욱을 왜 먹어 치웠을까? 에코리딩인은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주려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밭을 구경하거나 실제 모종을 체험해보지 않은 어린이들은 이해가 쉽지 않을 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어린이들과 동화책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함께 텃밭으로 이동했다.

《고라니 텃밭》 표지

텃밭으로 이동한 어린이들은 올망졸망 예쁘게 꾸며진 밭을 보고 모두 신기해했다. '작은농부텃밭교실'은 무농약 친환경 거름을 이용하는 환경텃밭인데, 텃밭에 대한 설명 후《고라니 텃밭》을 듣고 궁금했을 '텃밭', '모종', '농기구', '허수아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아직은 더운 날씨에 아이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아이들은 뙤약볕 아래 흙밭이 싫을 법도 한데, 모종삽을 하나씩 들고 흙은 파고 모종을 심는 체험에 신이 났다. 부모님들도 이런 자녀들이 신기하기도 흐뭇하다고 했다.

모종을 심고 나서, 상추는 언제든지 수확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끝나니 아이들이 삽결살을 먹자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모두 크게 웃으며 수업을 마쳤다. 모종들이 뿌리를 잘 내려 무럭무럭 자라나 어린이들이 수확의 재미도 느끼고 맛있게 먹길 바란다.

상추의 수확 설명을 듣는 에코리딩인과 참여 가족

노원에코리딩은 이렇게 매주 토요일 어린이들과 함께한다.
에코리딩인이 매주 어떤 계기로 이런 열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에코리딩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원에코리딩과 에코리딩인을 소개해주세요.

에코리딩인 모두 노원구 주민으로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임숙, 이범자, 박성희, 이상숙, 정선화입니다.

'에코리딩'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활동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지역주민으로서 더 나아가 지구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유아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환경동화책 읽어주기나 에코투어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직접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촉감북은 손끝 촉감과 소리를 통해 자연을 느껴보게 하는 책이고, 점자책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핀을 하나하나 박아 만든 책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도 기증하고, 프로그램 때 아이들과 함께 읽기도 하고, 에코센터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습니다.

'에코투어' 활동은 오늘 텃밭 활동처럼 에코리딩 이후 에코열매정원, 텃밭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활동인데 직접 심은 허브를 따서 모히토를 만들어보는 등 자연을 맛보여 줍니다.

(위) 노원에코센터 작은농부텃밭교실
(아래) 상추 모종을 심는 어린이들

(위) 노원 에코리딩인
(아래)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시 중인
에코리딩인이 제작한 촉감북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서 메리골드 심기, 토종 옥수수 심기,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텃밭 허브를 이용한 바질 버터 만들기, 태양열 오븐에 구운 계란먹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리딩' 봉사 전·후 지구를 위해 또는 환경을 위해 변화된 나의 각오나 행동이 있을까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옛 속담도 있듯이 유아,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자연스럽게 친환경적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 온 양육자분들이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텀블러 사용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징후들은 점점 정도가 심해지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친환경 생활 방법을 적극적 홍보하고 기후 위기를 막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환경을 위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에코리딩' 선생님이 되는 방법이나 필요한 소양이 있나요? 어떤 분께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도서관에 개설된 에코리딩인 교육을 수료하고 기본 소양을 길러 아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에코 관련 활동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하고,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친환경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노원에코리딩 참여 어린이들

노원에코센터에서 들었던 '천사들의 합창'은 에코리딩인이 있어 울려 퍼진 노래였다.

에코리딩인이 매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심은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씨앗이 어린이들 마음에 잘 자리를 잡아 고운 싹을 틔워 건강한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노원 구민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

A Symphony of Autumn Hues

11. November

가을빛의 교향곡

짙어지는 가을, 수확의 계절.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어느새 한 해의 끝을 예감하곤 하는 시기.
화려했던 축제도 모두 끝이 나고 이제는 그동안의 결실을 맺는 회고 같은 나날이 이어진다.
조용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작은 선물처럼 다가올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으니
동네의 천변과 산책로를 거닐며 노원과 함께 깊어지는 가을을 느껴보기를.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공존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환경 입체 낭독극 <우이냇@캠>

아름다운 생태하천인 우이천을 공유하고 있는 4개 구,
노원·도봉·강북·성북구의 문화재단이 뭉쳤다.
더 오래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위해, 그곳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 다채롭고 의미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중 노원문화재단이 준비한 독특한 낭독극을 만나보고 왔다.

글. 사진. 전은진(노원아띠 PM)

물길이 이어지듯 자연스러운 만남

서울의 윗동네,
노원·도봉·강북·성북구가
원래는 하나의 지역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주 옛날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같은 풍경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그중
우이천은 4개의 지역을 모두
경유하며 흐르는 소중한 천이다.
한때는 오염이 심했으나 꾸준한
정비와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거듭났다.

지금의 우이천은 다양한
생명들과 아름답게 조성된
경관으로 4개 구 주민에게 모두
사랑을 받는 산책로이기도
하다. 이에 4개 구 문화재단은
우이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축제를 함께 기획했다. 공연,
전시, 포럼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며 보다 확장된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노원문화재단은 특별히
우이천의 아름다운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담은 낭독극
<우이냇@캠>을 준비했다.
석계역 문화공원과 우이천
특별무대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동물과 공존할 방법이
무엇일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도봉문화재단은 '우이천
예술캠프'를 통해 지역의
예술교육가 그리고 도서관,
대학 등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성북문화재단은 플로깅
업사이클링 전시와 우이천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여
문화예술이 환경보호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에 대해 논했다.
강북문화재단은 협력하며 교육
공간을 공유하고 공연 개최를
진행하며 협력했다.

따로 또 같이 공생하는 삶을 위해

4개 문화재단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지역 생태계와 자연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환경
입체 낭독극 <우이냇@캠>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인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총 3번의 공연 중 마지막 공연은
10월 22일 우이천 특별무대에서
펼쳐졌다. 맑았던 날이 조금
흐려지고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하는 야외공연이라 관객이
없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공연이 진행되는 도중 관객석이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주민이 찾아왔다.

네 명의 배우는 각각 고라니,
고양이, 너구리, 도롱뇽을
연기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간이 사료에 흰
가루를 섞는 바람에 아팠던
고양이, 배가 고파 헤매다가
놀라는 바람에 인간과 강아지를
헤쳐서 미움을 받는 너구리,
시시때때로 인간에게 밟혀 죽는
도롱뇽. 거기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목숨을 잃은 원앙 가족의
이야기까지, 이미 다 듣고 아는
이야기였지만, 그들의 목소리로
들으니 더욱 끔찍하고 마음이
아팠다.

'우이천은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모든 땅이 과연
인간만의 것일까?' 던져진
질문에 누구도 확신하며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가 무심코 내디딘
발걸음에 작은 도롱뇽은 목숨을
잃기도 한다. 너구리에겐 자신의
공간에 인간이 무단침입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장난삼아 하는
행동이 어떤 존재들에겐 목숨의
위협이 된다. 우리는 항상 다른
존재들에게 빚져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린다.

관객석에는 특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았다.
어쩌면 우이천을 가장 오래
지켜온 그리고 지켜갈 존재들인
것이다. 공연의 마지막, 배우들은
밤하늘 아래 춤을 추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우리도 더 오래
깨끗하게 흐를 우이천에서 함께
춤출 수 있기를 바란다.

노원에서 디너쇼를 하는 그날까지

밴드 엔분의 일 인터뷰

노원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을 울림 있는 곡들로 꽉 채워주던 밴드, 엔분의 일.
이번에는 저 멀리 평창에서 진행한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돌아왔다.
매년 앨범을 내고 연말 공연을 하며 꾸준히 자신들의 음악을 지켜오고 성장해 온 그들.
노래만큼이나 흥겹고 즐거웠던 그들과의 이야기를 공개한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엔분의 일

반갑습니다. 노원아띠 구독자분들에게 엔분의 일을 소개해주세요.

김예현 노원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엔분의 일입니다. 이름인 엔분의 일은 저희 슬로건이기도 한 '우리 젊음을 나눠 먹자, N분의 1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각자의 매력들을 1/N씩 모아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 2023 MBC 강변가요제 뉴챌린지에서 대상을 받으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들려주세요.

신성규 그동안 많은 경연을 참여하면서 수상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떨어진 것도 많거든요. 팀의 음악 색깔이나 지향성이 경연의 성격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강변가요제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본선을 평창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무대도 크고 관객들도 많고 무엇보다 날씨가 맑아서 공연날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Under the Moonlight>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이 곡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요. 어떤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곡을 쓰게 되셨나요?

최훈 고민이나 불안이 없어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뤄지는 꿈이나 마법 같은 하루 밤을 담고 싶었어요. 사실 굉장히 촉박하게 나온 곡이었거든요. 경연 신청 열흘 전에 쓴 건데 다행히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어요.

최근에는 <POLARIS> 앨범을 발매하고 쇼케이스도 하셨지요. 이번 앨범 작업은 어떠셨나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소순우 2018년부터 매년 EP를 냈었는데 작년은 건너뛰고 더 잘 준비해서 올해 새 EP를 발매하게 되었어요. 3번 트랙에 '러버볼(Rubber Ball)'이라는 곡의 앨범 커버를 저희 팬분 중에 준디(junD)님이라는 화가분과 같이 협업을 했어요.

신성규 바다랑 감정석이라는 두 가지 오브제를 가지고 시리즈 작업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저희랑 '러버볼'이라는 곡으로 콜라보를 하게 된 거죠. 그림이 곡의 가벼운 부분들을 무게 있게 잡아주고 진중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진짜 만족스럽게 했던 작업이에요.

이제 11월이에요. 가을에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요?

최훈 저희 자체가 가을에 잘 어울리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한 곡만 뽑자면 '청춘'이라는 곡을 추천해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데 가을의 쓸쓸한 감정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예현 다른 앨범에서는 'Stars of You'와 '안녕이란 원래 이리 외로운 말이었나요'라는 곡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래 활동해오신 만큼 팬들과도 특별한 관계일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신가요?

소순우 베르다라는 스페인 팬분이 있는데 재작년이랑 작년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매일 저희 카페에 놀러 와서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했어요. 거의 친구죠 뭐.(웃음)

김명수 저희 강변가요제 나갔을 때 저는 신혼여행 중이었는데 마침 바르셀로나를 갔거든요. 베르다가 초대해줘서 그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가요제를 함께 봤어요. 보면서 울고.(웃음) 사실 아무 계획 없이 갔는데 베르다가 직접 아침부터 밤까지 며칠을 관광을 시켜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죠.

올해 남은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엔분의 일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소순우 12월에 저희의 다섯 번째 단독 공연이 잡혀있어요. 보통 공연은 2시간 정도 하면서 20곡 넘게 연주하는데 기획 단계서부터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요. 단독 공연 전까지도 매주 지역 행사가 계속 있고요.

엔분의 일의 앞으로 1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훈 10년 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엔분의 일 모습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냥 지금과 똑같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성규 아마 한국으로 내한을 오지 않을까요? 저희가.(웃음)

소순우 좋아하는 밴드 중에 더 킬러스(The Killers)라고 있는데 엄청 유명한 밴드거든요. 해외투어하다가 자신들의 고향인 라스베이거스에 돌아와서 호텔 디너쇼처럼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었음 좋겠어요.

김명수 아띠에 남기는 인터뷰니까 특별히 이사장님께 노원에서 크게 도로 막고 하는 행사, 좀 규모가 있는 행사에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웃음)

신성규 같은 가격으로 부르실 수 있는 모든 아티스트 중에 압도적으로 잘한다고요. 장담컨대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젊음과 미래! 역동적인 노원, 댄싱노원

2023년, 노원탈축제가 개최 10년을 기념해 댄싱 퍼레이드를 주목하여 새로운 이름 '댄싱노원'으로 새롭게 도약했다. 노원역 롯데백화점(KB국민은행) 사거리부터 순복음교회 앞까지 555m의 대규모로 진행되는 댄싱노원, 노해로 거리 일대에서 펼쳐지는 노원거리페스티벌 댄싱노원은 '젊음과 미래! 역동적인 노원!'이라는 주제로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글. 손혜리(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총상금 6,000만 원 대규모 퍼레이드 경연

서울을 대표하는 노원거리페스티벌 댄싱노원의 하이라이트는 단언컨대 노원구 주민을 비롯하여 아동, 청소년, 일반부 등으로 나뉘어 진행하는 댄싱 퍼레이드라고 생각한다. 평소 많은 차가 다니는 노해로 100m를 무대로 펼치는 퍼레이드는 총상금 6,000만 원을 걸고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치어리더, 줄넘기시범단, 검무, 태권도, 힙합, 풍물단 등 공연장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작품들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재미 요소였다. 퍼레이드 경연 1일 차에는 주민 자치 대전과 아동·청소년, 2일 차에는 대학부와 일반부가 진행됐다. 총 66팀이 많은 관람객과 심사위원 앞에서 우열을 가렸다.

남녀노소 모두 아우르는 가족 특별공연

댄싱노원이라고 퍼레이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대통령인 캐릭터 캐리와 친구들, 브레드이발소의 특별공연과 함께 벌룬쇼, 마술, 서커스, 브라스밴드, 버블쇼, 드로잉쇼, 전통 국악 등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게 거리예술공연도 곳곳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관내 소방서, 경찰서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부스에서 에코백 만들기, 머리띠 만들기, 소방복 포토존 등 아이들이 좋아할 콘텐츠로 축제를 빛내주었다.

15만여 명의 대규모 거리페스티벌 댄싱노원

2023 노원거리페스티벌 <댄싱노원>

- 2023.10.7(토)~8(일) 13:00~21:00
- 노원역 일원

총 15만여 명이 찾아온 댄싱노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즐길 거리를 풍족하게 만들었는데, 국내 수제 맥주 브루어리 1세대로 19년 이상 노원구에서 명맥을 이어오는 '브로이하우스바네하임'과 노원을 대표하는 '노원수제맥주협동조합'이 참여해 총 10종의 수제맥주를 판매했다.
이외에도 축제장 주변 골목까지 영역을 확장해 구만의 브랜드를 발굴하고 판매를 돕고자 '브랜드페어'를 진행하였고, 서울과학기술대, 삼육대, 서울여대 등 지역 내 대학들이 참여해 대학별 홍보, 이벤트, 버스킹 등을 펼치는 '대학문화체험'도 운영했다.
폐막식은 화려한 라인업으로 진행되어, B-On Top 우승팀의 무대로 막을 올리며, 이어서 가수 YB(윤도현밴드), 비보이크루 퓨전엠씨, EDM DJ산초의 공연이 펼쳐졌다.

노원을 밝히는 빛의 거리, 달빛 산책으로

노원에 펼쳐진 달빛 산책 개막식부터 도슨트까지 경험해봤다.

글. 사진. 문준영(노원아띠 기자단)

조명 하나 없는 어두운 밤길은 무섭다. 특히나 사람도 없는 한적한 거리에 빛이 없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밤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어도 추운 요즘의 날씨까지. 쓸쓸하고 쌀쌀한 거리를 위해 노원 당현천에는 화사한 선물이 준비되었다. 그건 바로 달빛 산책. 화려한 조명들과 수많은 시민이 모여 따스함과 밝음이 노원 곳곳에 퍼지는 행사가 10월 13일에 시작되었다.

행사 개막식을 맞아 대단히 많은 시민이 모였다. 모두 점등식을 보기 위함이다. 이미 수많은 조명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지만 빛을 뿜기 전이었다. 모두가 손을 모아 조명이 켜지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행사 관계자분들의 스위치와 함께 화려하게 행사가 개막했다. 기다란 당현천이 무수히 많은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본격적으로 산책을 즐길 채비를 하느라 바빴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서 빨리 다양한 조명 전시를 구경하고 싶어 마음이 들떠있었다.

개막식은 여러 공연과 함께 분위기를 띄워주었고 옆에서는 아름다운 낙화놀이가 한창이었다. 불꽃이 잔잔하게 떠오르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실제로 낙화놀이에 사용된 종이는 노원구 시민들의 소원이 적혀있는 종이들이었다. 비록 종이에 내 소원을 싣지는 못하였지만, 마음속으로 작게나마 소원을 읊조리면서 본격적으로 행사를 즐기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올해 달빛 산책의 테마는 '빛의 연금술'이었다. 연금술이라는 주제에 맞게 모든 조형물이 마치 판타지 영화에 온 것처럼 신기한 색과 모양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천과 어울리는 귀여운 동물들부터 신기한 현대 기술이 응용된 빛의 전시들이 연금술에 빠진 관객처럼 넋을 놓게 했다. 해당 전시에는 한 명의 예술가가 아닌, 다양한 나라, 다양한 나이대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하천을 걸을수록 저마다 다른 테마와 주제들을 골라 즐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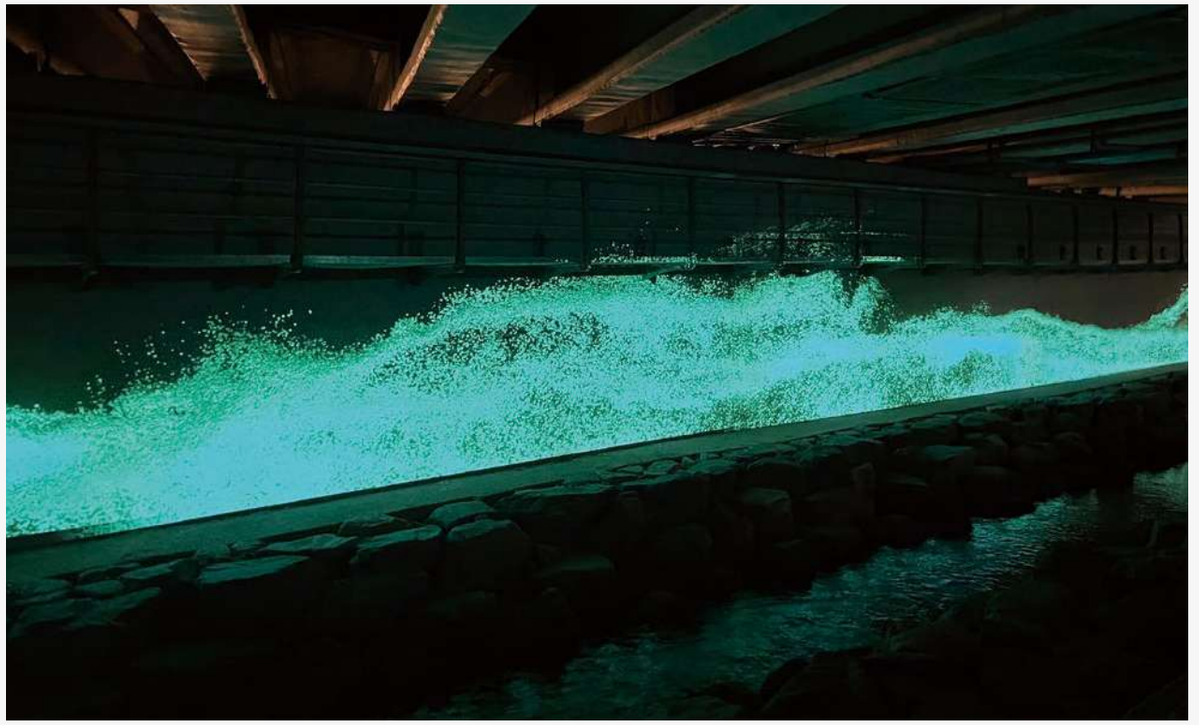
이번 달빛 산책에서는 실제 노원구 시민 중 몇몇 분들을 뽑아 도슨트를 담당해 주셨다. 도슨트분들은 꽤 긴 산책길을 같이 걸으며 조형물 하나하나의 의미와 만들어진 과정에 관해 소중하게 말씀해 주셨다. 특히나 이번 전시에서는 노원구 시민들의 합작이 아주 많았다. 노원구에 사는 초등학생부터, 청년, 어르신들까지 뛰어나신 작가분의 프로젝트 속에서 같이 의견과 디자인, 심지어는 제작까지 같이 참여했다. 노원구의 행사인 만큼, 노원구민들의 참여가 이뤄졌다는 배경이 조명보다 더 따스하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하천뿐만 아니라, 다리 밑의 공간까지 마치 스크린으로 활용한 듯 화려한 전시와 조형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산책길 끝에는 달빛산책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달빛과 같은 조명이 있었는데, 신비로운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 찾아올 추위마저 따뜻해질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노원구에 펼쳐진 빛의 거리, 밝은 조명보다 더 눈부셨던 건 해맑게 웃으며 산책길을 걷는 노원구 시민들이 아니었을까?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이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노원 달빛 산책

- 2023.10.13(금)~ 11.5(일)
- 당현천 2.5km 구간 (상계역, 수학문화관~ 중계역, 당현 1교)



가을 햇살 맞으며 책과 함께 노니는 시간

2023 노원 북 페스티벌

길게 뻗은 숲길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도서관.
아파트 단지 옆에 놓인 상계근린공원은 비밀의 숲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
볕 좋은 가을날, 그곳에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여 책과 함께 노니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한 북 페스티벌로 떠나보자.

글. 사진. 전은진(노원아띠 PM)

경계를 허무는 사색의 시간

이번 북 페스티벌의 주제는 사색. 깊이 생각한다는 뜻과 네 가지 색의 의미를 모두 담았다. 그 이름에 맞게 길게 뻗은 공원을 네 가지 공간으로 나누었다.

처음 공원에 들어가면 마주하는 '샘: 발견하다' 공간은 야외에서 도서관과 독립서점을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노원구 여러 공방에서 참여한 아트마켓에서는 알록달록한 액세서리부터 도자기, 뜨개 소품, 가방, 한복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들을 만나게 된다.

상계숲속작은도서관이 있는 '숲: 마주하다'에서는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강의나 상담 공간과 숲 큐레이션 전시, 그리고 작은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져 있다. '쉼: 쉬어가다'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리딩인이 그림책을 읽어주거니 팝업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메인무대가 있는 '삶: 알아가다' 공간은 알록달록 우산을 매달아 놓아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방문객들은 빈백 의자에 누워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고, 전시 공간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기기도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직접 기념품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메인무대에서는 아프리카 음악, 어린이와 실버 합창단, 어쿠스틱 R&B 듀오의 무대부터 힙합 댄스, 치어리딩 공연 사이 북콘서트가 열렸다. 2023 노원구 한 책 읽기 선정 도서인 <나는 나답게 나이 들기로 했다> 의 이현수 작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안티에이징 대신 웰에이징으로

2023 노원구 한 책 읽기의 주제는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자칫 노인을 위한 주제 같지만, 사실 어린이부터 청년, 중장년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번 북 페스티벌은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많이 보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서 여러 경계를 허물려는 노력도 보였다.

50세의 첫 책을 썼다는 이현수 작가는 나이 듦이라는 것이 마치 바닷가 마을에 해일이 들이닥치는 느낌 같다곤 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막상 닥치고 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작가는 나이 드는 자신을 위해 이 책 <나는 나답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썼다고 했다.

지금 그에게 나이 듦이란 '자유'를 뜻한다. 나이에 대한 관점을 바꿔 안티에이징을 멈추고 웰에이징을 추구하면 나이 드는 것도 즐거워진다는 것이다.

그가 책에 적은 '첫 늙음'은 시간은 달라도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오는 시기다.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더 멋지게, 건강히 늙어가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눈 깜짝할 속도로 바뀌어 가는 세상에서 노인이 불편해하는 기술은 완벽한 게 아니라는 말이었다. 결국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또 다른 키오스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누구 하나 거기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그 말이 큰 울림을 주었다.

북 페스티벌에 있는 내내 찬란한 가을 햇살이 함께 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웃는 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웠다. 책을 읽는 사람들도, 간식을 먹으며 산책하는 사람들도, 놀러 온 강아지들도 있었다. 누구도, 어떤 존재도 차별하지 않는, 소외되는 존재가 없는 진정한 축제가 아닐까 생각했다.

화분 속 씨앗은 무엇으로 자랄까?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추천 기획전시 <In My Pots>

지난 10월 23일 오후 2시 <In My Pots> 전시 오프닝 행사가 노원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실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화분들이었다.
전시 타이틀도 그렇고, 왜 화분일까? 그런 궁금증을 품고 전시실로 들어갔다.

글. 김윤지(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김윤지

노원구 나비정원과
경춘선 숲길 체험을 화폭에 담다

이번 전시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김기정, 서은정, 심안수, 김진주, 박창배 작가가 현대미술 작가 이곤의 안내 아래 노원구 나비정원과 경춘선 숲길을 답사하고, 전문가 창작 워크숍도 한 후 작품을 완성했다. 다섯 명의 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느끼고, 서로 다른 이미지로 작품을 만들었다. 전시 준비 과정과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도 있어 작품과 전시 기획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풍경과 큰 동물을 그리던 박창배 작가는 나비정원을 다녀온 후 작은 곤충을 관찰하고 그리는 재미를 알게 됐다. 바오밥 나무를 좋아하는 김기정 작가는 나비정원에서 인상 깊었던 초록색과 큰 나뭇잎을 캔버스에 가득 담아 나비정원을 표현했다. 사물의 정당한 자리와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깊은 김진주 작가는 나비정원 카페에 들어섰을 때 연상되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나비정원을 새롭게 표현했다. 생동감 있는 화풍을 지닌 심안수 작가는 꽃이 가득한 들판이 있는 곳으로 기차 여행 가는 상상을 그렸다. 유년 시절 애착 관계에 있던 인형이 작업 주제인 서은정 작가는 나비들의 은밀한 일대기를 보며 나비의 삶, 집, 가족 등을 떠올렸고 그것을 인형과 함께 화폭에 담았다.

박창배 <불암산의 작은 곤충>

김진주 <노원의 이상한 나비정원>

서은정 <오로라 나비정원>

예술의 가치는
서로 다름을 뛰어넘는 소통

최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 공연과 전시가 많아지고 있다. 장애 여부나 미술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작품 자체에 집중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 성별, 나이, 신체, 생김새, 언어, 환경, 문화, 성격, 특성 등 각자의 고유함이 있다. 말과 행동만으로 각자의 의도가 뜻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예술의 가치가 두드러지는 것 같다. 세상과 혹은 다른 사람과 표현 방식이나 속도가 다를 때, 예술은 그 벽을 넘어 소통 창구가 되어준다.

전시실 중앙에 있는 화분은 '창작씨앗 프로젝트'로 관람객들의 창작 본능을 깨우기 위해 준비됐다. 원하는 화분을 가져가고, 화분이 있던 위치에 자기 이름과 날짜를 기록하는 스티커를 붙인다. 작은 화분이 어떤 결과물로 완성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화분 속 씨앗이 움트길 기다리며 가꾸는 동안 자기 내면의 씨앗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화분은 예술인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사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식물을 키우기 위한 필수요소인 토양, 수분, 빛, 온도를 담는 화분처럼 장애 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지역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는 의미다. '우리는 각자 다르다'는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과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나 또한 언제 어떻게 사회적 약자가 될지 모른다.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탓도 아니고 정해진 자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란다. 제각각의 모양과 색깔을 지니고 있어도 충분히 조화로운 자연처럼 말이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획전시
<In My Pots>

2023.10.23(월)~
11.5(일) 10:00~17:00
휴관일 없음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노원아트갤러리

김기정 <나비 정원을 아세요>

심안수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리가 만드는 문화, 모두가 즐기는 노원

2023 노원 생활문화 축제
‘모두의 놀터’ 개최

지난 10월 21일, 청명한 하늘 아래 ‘우리’의 문화를 펼치는 무대가 열렸다. 공릉동 서울여성공예센터 마당에서 노원구의 첫 생활문화 축제 <모두의 놀터>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원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 단체와 공간들이 서로가 만들어가는 문화를 선보였다.
노원문화재단 <모두의 생활문화> 앰배서더 기동이의 안내를 받으며 경험한, 활기차고 열정적이었던 그 현장을 소개한다.

글. 사진. 김주영(노원문화PD 3기)

각양각색(各樣各色), 다양한 감각을 큐레이션하다

(위) 부스 전경, (가운데) 책방 사장님과의 인터뷰, (아래) 모두의 식탁

기동이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들어선 행사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각양각색의 부스들이었다.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앞마당에서는 ‘모두의 취향’, ‘모두의 마켓’ 섹션을 통해 미술작품과 공예품들을 감상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모두의 예술가’ 섹션에서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직접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있었다.

앞마당의 가장 안쪽 자리 ‘모두의 서재’에서는 동네 책방들이 각자의 감각을 담은 책들을 선별하여 소개했다. 또한 서울여성공예센터 1층에서는 ‘모두의 서재’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작가들의 토크, 책방 사장님과의 인터뷰, 초등학생 대상의 만들기 체험이나 낭독극 동아리의 창작공연 등과 같은 행사들은 노원구민의 독서경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뒷마당에서 진행한 ‘모두의 식탁’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만든 다양한 요리와 음료들을 맛볼 수 있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며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는 모습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노원스타N>, 구민들의 열정이 스테이지를 데우다

앞마당에서 유독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또 하나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다. 바로 2023 노원 생활문화 경연 프로젝트 <노원스타N>의 무대였다. 먼저 <노원스타N>은 노원구의 생활문화인이나 생활문화동아리가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모두의 놀터> ‘모두의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공연은 지난 9월 <노원스타N>의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펼치는 본선 무대였다. 이들은 통기타, 하모니카, 플루트, 색소폰 등의 여러 악기 연주부터 훌라 댄스까지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선 무대 전후로는 청년 밴드, 택견, 댄스, 그리고 연극 등의 축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

(위) 모두의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택견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
(아래) <노원스타N> 우승팀_통기타 여우림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통기타 연주 동아리 <통기타 여우림>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갑습니다. 노원 아띠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통기타 여우림입니다. 4년 전에 팀을 결성해서 노원구 동네 버스킹이나 장애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재단에서 시행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음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원스타N>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나이가 65세거든요. 65세 만에,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희열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이런 희열을 느낀다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경험입니다. 너무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계기로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렇게 대회까지 참여하게 되셨나요?

원래 기타를 좋아했는데 마땅히 모임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따로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고 서로의 리듬이 맞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함께 맞춰가며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동네에서 함께 음악을 한다는 것. 그것이 선생님들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취미가 있지만 '기타'라는 관심사로 모여 음악도 하고, 가정사와 같은 여러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를 결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아리원 소집이나 강습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이 즐거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동네가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형제들은 더 멀어지는데 오히려 정말 가까운 존재는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들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정말 최고입니다.

숨겨진 이벤트가 주는 즐거움은 덤!

<모두의 놀터>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재미는 행사장 사이사이에서 진행한 작은 이벤트였다. 축제를 즐기며 숨겨진 스탬프를 모으거나, '모두의 연못'에서 진행되는 낚시게임을 통해 귀여운 기동이 굿즈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시각문화, 공연문화, 독서문화, 그리고 음식문화까지. 장르 불문, 세대 불문 즐길 수 있던 이번 2023 노원생활문화축제 <모두의 놀터>는 노원구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더욱 빛이 났다.

또한 '모두'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어 통역과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사가 함께 했다는 점은 무심코 지나치곤 했던, 하지만 당연히 존재해야 했던 행사의 요소를 인지한 세심함이 인상적이었던 시간이었다.

모두의 연못에서 낚시 게임을 즐기는 가족들

2023 노원 생활문화 축제 <모두의 놀터>

2023.10.21(토) 10:00~18:00

서울여성공예센터 앞뒤 마당

In Snowfall, Year's Last Chapter

12. December

흩내리는 눈, 한 해의 마지막 장면

벌써 첫눈, 벌써 12월… 연말은 벌써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닐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어김없이 끝은 온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 있었고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웃거나 맛있는 것을 나눠 먹은 기억들이 있다.
함박눈이 내리고 고요해진 세상 속에서 한 해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어쩌면 잊고 있던 보물 같은 장면들을 다시 길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올해 노원을 빛낸 대표 문화행사는?

2023 노원문화재단 어워드

"노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축제입니다. 매년 좋았습니다."
노원문화재단 어워드에 들어온 답변 중 하나. 노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올해는 나 역시 주변 지인들에게 "노원에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해였다. 덕분에 멀리 나가지 않고도 풍성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2023년 노원구민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위안을 준 축제와 전시,
교육과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약 170명의 노원아띠 구독자들에게 물었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노원문화재단

명실상부한 노원 대표 축제 '달빛산책'과 신흥 강자 '수제맥주축제'

올해 노원에서 열린 축제는 10개(경춘선숲길가을음악회, 노원 북 페스티벌, 노원 수제맥주 축제, 노원거리예술제, 댄싱노원, 노원생활문화축제 <모두의 놀터>, 불암산 철쭉공연산책, 빛조각페스티벌 노원달빛산책, 수락산 선셋 음악회, 전국 비보이 배틀대회). 어느덧 매년 생각나는 축제와 새롭게 선보인 축제들이 조화롭게 노원구 전역에서 펼쳐졌다.

특히 봄과 가을 볕좋은 나날들을 함께 한 축제들 덕분에 주말마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즐겁게 놀다간 축제들도 많았다.

그 중 가장 많은 구민들이 선택한 축제는 '빛조각페스티벌 노원달빛산책'과 '노원 수제맥주 축제(각각 26명, 19%)'였다. 노원달빛산책은 노원구의 시그니처 축제로 자리잡았다는 의견과 가족들과 함께 가을 산책하며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함께 했다. 노원 수제맥주 축제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남겨주었다.

그 외에도 노원 북 페스티벌(24명, 17%)과 경춘선숲길가을음악회(18명, 13%) 역시 많은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위) 빛조각페스티벌 노원달빛산책
(아래) 노원수제맥주축제

(위) 연극 <러브레터>
(아래)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오페라 콘서트

지금 노원은 클래식 열풍

올해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연 중에는 연극 <러브레터>(26명, 21%)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배종옥, 장현성 배우의 연기로 몰입도가 높고 부모님과 함께 보기 좋았다는 의견이었다. <2023 신년음악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2023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도 각각 21명(17%)의 선택을 받으며 노원구민들의 클래식 사랑이 느껴졌다.

어린이극장의 공연 중에서는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오페라 콘서트>가 무려 34%가 넘는 구민의 선택을 받았다. 아이들에게도 오페라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기회가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색적인 경험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전시

노원아트갤러리의 전시 중에는 작년에 이어 열린 <해외 블루칩 작가>(30명, 28%)과 <아프리카 현대회화>(27명, 25%)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이색적인 작품을 즐길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도슨트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개최된 <철길따라 보는 풍경전>(26명, 21%) 과 <브릭아트: 세 가지 시선>(23명, 18%)은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며 즐기기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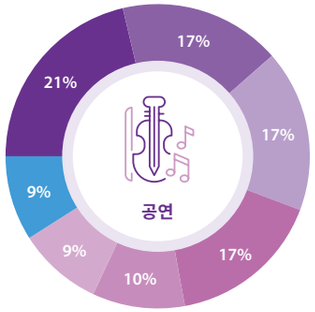
2023년은 노원에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사업과 교육이 펼쳐진 해이기도 했다. 청년과 신진작가들의 작품 활동 지원부터 구민들과 함께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경험을 선사했다.

그중에서도 인문학북콘서트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38명, 22%)과 찾아가는 문화예술나눔 <노원 즐거운 콘서트>(27명, 15%)의 경우 인문학 공연을 통해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응답했으며, <기웃기웃 동네탐방대 '모두의 놀터'>(17명, 10%)와 노원문워크(13명, 7%)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세대와 분야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시, 가곡, 오케스트라, 연극 강좌로 구성된 문화강좌(52명, 50%)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소년시각예술교육 <달빛예술학교>(24명, 23%)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 전시 <해외 블루칩 작가>
(아래) 인문학북콘서트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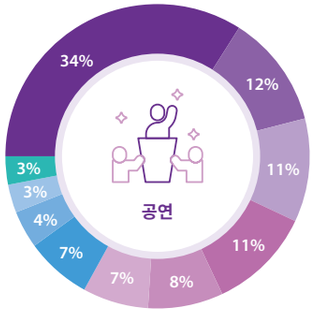
2023 노원문화재단 어워드 설문조사



2023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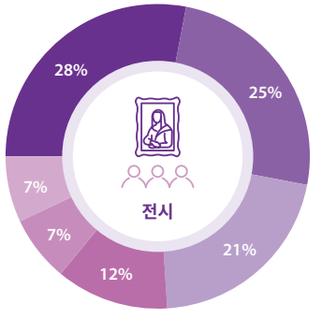
연극 <러브레터>	26
2023 신년음악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21
2023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노원	21
부활 콘서트 <Born Again>	20
주현미 콘서트 <5월의 선물>	12
나윤선 JAZZ 콘서트	11
하림의 음악 따라 세계여행	11
총 합계	**122**



2023 노원어린이극장 기획 공연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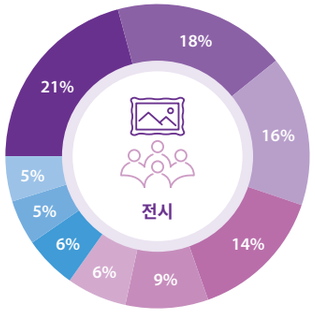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오페라 콘서트	38
우리집에 괴물이 산다	14
방과후 공연놀이터	12
불 켜는 아이	12
깔깔나무	9
개굴개굴 고래고래	8
말하는 원숭이	8
용감한 탄티	5
하얀나라	4
프렌쥬 클래식 사파리	3
총 합계	**113**



2023 노원아트갤러리 기획 전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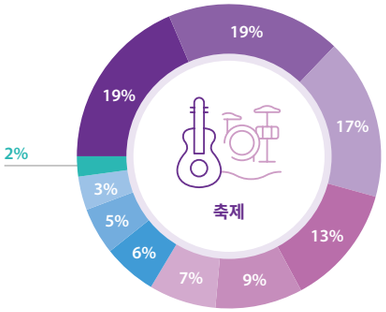
해외 블루칩 작가	30
아프리카 현대회화	27
백지혜·신선미 초대전 <꽃처럼, 아이처럼>	22
In My Pots	13
本 그리고 美: 연우然愚 최충웅 회고전	8
김예지, 이승화, 최재훈 초대전 <CONTINUE>	7
총 합계	**107**



2023 경춘선숲길 갤러리, 상계예술마당, 문화공간 정담 기획 전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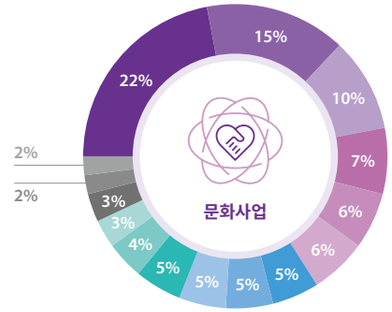
철길따라 보는 풍경전	26
브릭아트: 세 가지 시선	23
이우영1972-2023: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	20
바다와 요나, 그리고 너의 시간	18
달콤한 상상	11
어느새 장미꽃이 이울고 수풀이 우거졌다	8
문화공간 정담 1주년 <정담, 첫돌>	7
설맞이 기획전시 <노원 지역작가 기획전>	6
어린이 촉감 전시 <여행하는 상계정원>	6
총 합계	**125**



2023 노원 축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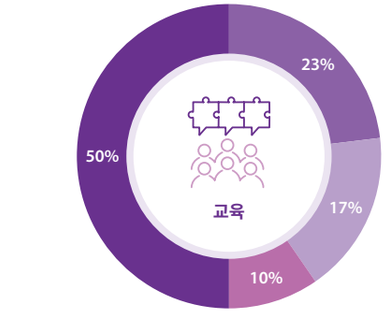
노원 수제맥주 축제	26
빛조각 페스티벌 - 노원달빛산책	26
노원 북 페스티벌	24
경춘선숲길가을음악회	18
노원거리페스티벌 - 댄싱노원	13
전국 비보이 배틀대회(B-On Top)	10
불암산 철쭉 공연산책	8
노원거리예술제	7
수락산 선셋 음악회	5
노원생활문화축제 <모두의 놀터>	3
총 합계	**140**



2023 노원문화재단 문화사업

(단위 : 명)

인문학북콘서트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	38
찾아가는 문화예술나눔 <노원 즐거운 콘서트>	27
모두의 생활문화 <기웃기웃 동네탐방대 '모두의 놀터'>	17
노원문워크(노크톡톡, 노곤, 노원구엔, 노원왓수다 문화PD)	13
노원 생활문화이야기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전시, 공연)	11
노원생활문화 경연 프로젝트 <노원스타N>	10
시각예술 전시지원사업(경춘선숲길 갤러리&문화공간 정담)	9
노원문화브릿지(노원왓수다 문화PD)	8
노원예술씨앗 지원사업	8
청년예술활성화사업(예술확성기, 청년 시각예술분야 예술활동 지원)	8
상계예술마당 기획전시사업	7
104마을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역문화활성화사업	5
시각예술 대학생 창작지원사업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5
시각예술 신진작가 지원사업	4
야외무대 기획공연사업 <STAGEnowON>	3
총 합계	**173**



2023 노원문화재단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문화강좌	52
청소년시각예술교육 <달빛예술학교>	24
노원축제학교 1기	18
교과서 예술여행 <남사당 별주부전>	10
총 합계	**104**

지난 1년, 아띠와 함께 한 시간을 돌아보며

아띠를 만드는 사람들

2023년에도 노원아띠는 4명의 기자단과 함께 했다.
노원구를 거점으로 하는 주민들이 직접 기자가 되는 노원아띠 기자단은
노원아띠가 창간한 이래로 꾸준히 함께 해왔다. 다른 해보다 적은 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부지런히 지역 곳곳의 행사를 돌아다닌 기자단들!
1년 동안 함께 한 소감을 나눠보자.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김윤지·문준영·손혜리·조혜인(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조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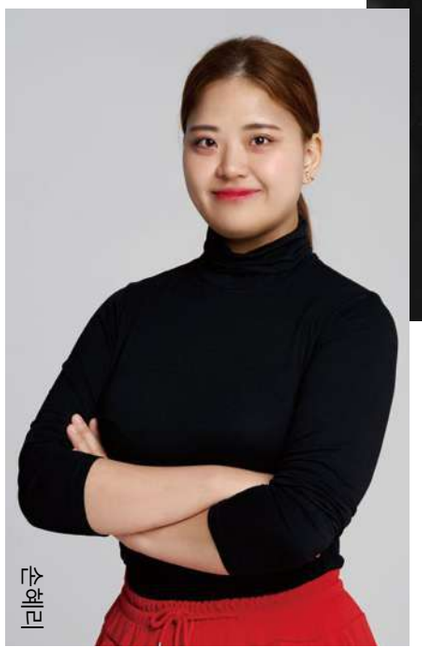
2월호부터 12월호까지
기자단으로 활동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윤지 매번 기획 회의를 할 때마다 기대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문화예술 행사를 할까. 마음 같아서는 모두 보고 싶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놓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노원아띠 활동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보고 기사로 남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가 참여하지 못한 공연이나 프로그램은 다른 기자님들이 생생하게 써준 기사를 읽고 대리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아띠 활동으로 문화예술과 가까운 1년을 보냈습니다. 또한 4년 동안 활동하며 글쓰기 능력이 조금이나마 성장한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문준영 노원에 정말 많은 문화예술이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취재하던 늘 설렜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청년 예술가분들과 예술을 즐기는 노원구민분들의 만남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억으로 제가 살던 노원을 채워나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손혜리 노원아띠 기자단으로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였습니다. 다른 기자님들의 기사를 보며 힘도 얻기도 하고, 매달 진행되는 노원구 소식을 근접하게 듣고 취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어요!

조혜인 올해의 반은 노원어린이극장과 함께 했네요! 노원에서 펼쳐지는 아동극을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불 켜는 아이>, <우리 집에 괴물이 산다>, <더 미러&그것 참 조타> 등 도전의 일환으로 아동극 평론 형태로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예술이 꽃 피우고 있는지를 경험했고 여러 줄기를 경험했지만, 그 중 굵직한 줄기는 아동극이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노원의 아동극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어요.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본인의 모습이 있으셨나요?

김윤지 제가 생각보다 미술품 전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쓴 기사들을 보면 전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과 인터뷰하며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도 좋았고, 같은 예술가로서 공감되는 지점도 많았습니다.

문준영 저는 예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취재하러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너무 주류 예술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닐지 하는 생각에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모여 예술과 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모습을 봐왔습니다. 단순한 미디어나 주류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전시와 문화 사업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혜인 노원살이 3N년 차. 노원의 새로운 공간에 가서 노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2024 노원아띠 기자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윤지 노원아띠를 통해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노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노원아띠를 하면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지만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거나, 글쓰기에 자신이 없다고 해도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은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발전하기 마련이니까요.

문준영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토록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는 흔치 않다고 장담합니다. 또한 그것을 글로써 기록하며 나의 예술과 문화를 하나씩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단순한 재미를 넘어 1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에 깊은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망설이거나 고민한다면, 정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혜리 혹시 노원구의 소식을 좀 더 빨리 접하고 싶거나, 글 쓰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노원구민이 계신다면 노원아띠 기자단 활동을 진심으로 추천 드립니다!

조혜인 나에게 지면이 허락되는건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노원아띠'에서 나의 예술 경험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노원아띠 구독자들의 발이 되어 직접 이곳저곳 뛰어준 기자단들의 소감을 들으니 나 역시 한 해가 간다는 게 더욱 실감이 난다.
작년에는 기자단으로, 올해는 PM으로 매 달의 기사를 쓰고, 다른 기사들을 차곡차곡 쌓아 정리하고 만들며 새로운 감각으로 노원아띠를 만났다. 노원아띠 3주년 이벤트를 통해 구독자 수도 듬뿍 늘었고 직접 구독자가 쓴 생일 에세이를 받아보기도 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실을 수 있는 노원아띠가 되길 바라 본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방과후 공연놀이터 <흥얼흥얼 함께 만드는 판소리>

지난 11월 8일 노원어린이극장에서 '방과후 공연놀이터'의 첫 프로그램이 시작했다.
노원어린이극장 개관 3주년을 기념하는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8주 동안 매주 다른 예술 장르의 공연 체험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처음으로는 소리꾼 강나현과 정준규 고수가 함께하는 판소리 체험이었다.

글. 사진. 김윤지(노원아띠 기자단)

보기만 하는 것을 넘어 체험으로

수요일 오후 2시가 좀 넘자 노원어린이극장에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앞으로 8주 동안 춤, 음악극, 퍼포먼스, 클래식, 성악, 발레, 전통악기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예술을 직접 보고 배워볼 수 있는 '방과후 공연놀이터'에 온 아이들이었다. 첫 번째는 국악, 판소리였다.

무대에는 병풍과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 바로 소리꾼과 고수가 나오나 싶었는데, 진행자가 먼저 나왔다. MBC 공채 개그맨이자 TV 유치원 파니파니에서 튼튼맨으로 활약한 조승제가 '쌤쌤'이라는 닉네임으로 소개하며 아이들과 거리를 좁혔다. 막대 과자 선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호감도 사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다. 10분 정도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갖고 소리꾼 강나현과 정준규 고수가 나왔다.

함께 만들어 더 재밌는 판소리

먼저 판소리 공연을 감상했다. 수궁가의 한 대목이었는데, 날짐승들이 상좌들 다투는 대목, 길짐승이 상좌를 다투는 대목, 호랑이가 나이 자랑하는 대목, 별주부가 호생원을 부르는 대목이었다. 사실 판소리가 옛말이 많아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멜로디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LED 화면에 가사를 표현하는 이미지가 나와 이해하기 쉬웠다.

상좌 다툼이란 쉬운 말로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형님이다'라는 것이다. 먼저 봉황새가 그다음으로 까마귀와 부엉이가 각각 자기가 더 형님이라고 다툰다. 그리고 기린, 코끼리, 곰, 다람쥐, 원숭이, 들개, 너구리, 멧돼지, 노루, 사슴, 승냥이, 오소리, 고라니 등 들(길)짐승들이 각자가 더 나이가 많다며 다툰다. 이때 토끼가 등장하고 배고픈 호랑이까지 합세하여 자기가 어른이라며 말싸움한다.

이때 토끼의 간을 찾으러 온 별주부가 뭍으로 나오는데 먼 길을 헤엄쳐 와 턱에 힘이 빠져 토생원을 호생원이라 발음하고, 난생처음 '생원(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호랑이는 기분이 좋아 별주부에게 다가간다. 이 대목이 바로 그 유명한 '범 내려온다'이다.

여기까지 판소리를 듣고 '범 내려온다'를 함께 배웠다. 우선 어려운 옛말을 이해하기 쉬운 요즘 말로 바꾸고, 가사 속 의성어·의태어를 괄호로 비워두고 거기에 넣고 싶은 단어를 채워 넣으며 판소리를 배웠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매우 귀엽고, 참신했다. 완성된 '범 내려온다'는 아래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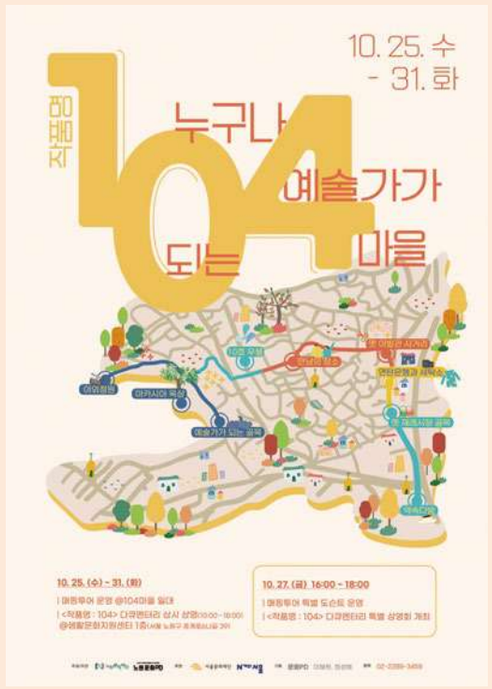
범 내려온다 / 범이 내려온다 /
소나무 숲 깊은 골짜기로 / 한 짐승이 내려온다 / (흥얼흥얼 흥얼흥얼) /
(찰랑찰랑) 머리를 흔들며 / 양 귀 쭉 찢어져 / 몸은 얼쑹덜쑹 /
꼬리는 (꼬불꼬불) / (포동포동) 앞다리 / (귀염뽀짝) 뒷다리 / 뾰족뾰족 발톱으로 /
한겨울 눈을 / 좌르르르 흩이고 / 주홍입 쩍 벌리고 / 자라 앞에 가 우뚝 서 /
(어흥어흥) / 허는구나

함께 채운 가사로 판소리를 불러보고, 질문을 받았다. 아이들은 저 아저씨(고수)는 왜 흰옷을 입었는지, 뒤에 있는 것(병풍)은 무엇인지, 왜 노래(판소리)를 하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빈칸 채우기에 매우 적극적이던 아이들과 함께한 70분은 금방 지나갔다. 요즘 말로 불러본 판소리도 그 나름대로 말맛이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방과후 공연놀이터'에 참여해 문화예술 관심 영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공연놀이터>

- 2023.11.8(수)~ 12.27(수) 매주 수요일 14:30~15:40(70분)
- 노원어린이극장



104마을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법

‘〈작품명 : 104〉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마을’ 프로젝트 매핑투어 및 다큐멘터리 특별 상영회 개최

1960년대 말 서울 곳곳에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104마을’ 이렇게 모인 주민들은 모래로 벽돌을 쌓아 집을 짓고
공동수도를 들여오며 104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손수 만들어 나가기를 택했다.
재개발 바람이 불어 많은 이들이 떠나면서
예전과 같은 이웃 간의 온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나,
104마을은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재개발을 둘러싼 지난한 시간 속에서 104마을의 풍경을 추억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됐다.
노원문화재단 역시 마찬가지다. [N개의 서울] 노원왓수다 문화PD 프로젝트를 통해
104마을을 다각도로 조명해왔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재단과 함께한 노원문화PD 3기 이혜원, 정성혜 그리고 영화사 삼인칭시점이 기획한
‘<작품명 : 104>,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104마을을 촘촘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 사진. 문화진흥부, 이혜원·정성혜(노원문화PD 3기)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특별하게 재개발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마을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는 네 인물의 시점에서 104마을을 담아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마을’이라는 부제는 마을 곳곳을 자신만의 시점으로 그려내는 네 명의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04마을의 모든 순간에 흔적을 남긴 이들을 ‘104마을 예술가’로 칭하고자 덧붙였다. 그저 노스탤지어 어린 시선으로 달동네의 이미지를 포착하려는 방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이면에 깃든 104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했다. 네 인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 안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마을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매핑투어를 기획하게 되었다.

기획, 섭외, 촬영, 편집, 제작, 투어 작품 설치까지. 인고의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27일 비로소 지역에 선보이게 된 ‘<작품명 : 104>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마을’. 선선한 가을날 진행된 매핑투어 도슨트 및 특별 상영회 현장을 공개한다.

<작품명 : 104> 매핑투어

104마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온 엄영이, 주은영, 김윤희, 전병종 마을예술가에게 기억에 남는 장소와 마을이 사라져도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장면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수집한 개개인의 애틋한 장소와 이야기를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백사마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투어에는 마을예술가들의 에피소드가 녹아든 지역 작가 4인(김용숙, 조은희, 주은영, 한민숙)의 새로운 회화 작품과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다큐멘터리 클립 영상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았다. 해당 전시 장소에 대한 104마을 예술가들의 생생한 추억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풍성한 투어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10월 27일엔 투어 기획자 혜원PD가 해설자가 되어 함께 예술가의 에피소드를 탐방하며 이를 소개하는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04마을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신청해 20여 명의 참여자가 모여 삼삼오오 104마을의 언덕길을 올랐다. 9곳의 매핑투어 코스를 모두 돌아본 후 자연스럽게 상영회 장소인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도착하게 되었고, 투어에서 관람했던 작품들의 원화를 관람하며 도슨트가 종료되었다.

<작품명 : 104> 다큐멘터리 특별 상영회

도슨트를 마치고 드디어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관객에게 선보이는 특별 상영회가 시작되었다. 104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공간에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 편안한 캠핑 의자와 소품 등을 활용했다. 오후 5시, 드디어 '104마을 극장'이 열리고 프로젝트 기간 오며 가며 마주친 반가운 주민분들이 찾아오셨다. 높은 언덕길까지 걸음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팝콘과 다과, 영화 티켓을 제공해 104마을 극장만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상영회의 문을 활짝 연 퓨전국악 그룹 '노래가 야금야금'의 축하 공연은 마을 주민분들 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두루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 잔잔한 가야금 선율이 상영회 공간에 울려 퍼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어 갔다.

공연이 끝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소개와 다큐멘터리 상영이 진행되었다. 문화PD와 제작에 참여한 영화사 삼인칭시점이 <작품명 : 104> 프로젝트의 취지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간단히 소개한 후 17분가량의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 스크린 속 104마을의 여름이 가진 찬란한 풍경이 관객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상영이 끝난 후 자연스레 박수가 이어졌다.

특별 상영회를 마련한 큰 이유 중 하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인터뷰이 '104 마을예술가' 네 분을 자리로 모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함이었다. 아쉽게도 김윤희 문화관광해설사님은 개인 일정상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엄영이 중계마을경로당 회장님, 104마을예술창작소 주은영 작가님, 전병종 백성세탁소 사장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전하고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마을예술가분들의 덕이 너무나 컸기에, 이들에게 박수갈채를 전할 수 있던 시간이 어쩌면 이번 상영회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 외에도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관계자 등 <작품명 : 104>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과 인사를 나누며 특별 상영회 자리를 마무리 지었다.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2023년 여름, 혜원PD, 성혜PD, 영화사 삼인칭시점이 함께 만든 이번 프로젝트는 각자의 삶에도 아름다운 한 장면을 남겼다. 수많은 이야기로 쌓아 올려진 '104마을'은 재개발과 함께 사라지겠지만, 개개인의 고유한 기억으로 다 함께 완성해낸 <작품명 : 104>는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봐왔던 나무는 사실 모두 다르다.

노원 청년들이 바라본 나무의 美에 관하여

길을 지나면서 많은 나무를 지나쳐 왔지만,
그것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삭하게 밟던 낙엽이나 비가 축축하게 내릴 때
신발에 짜증 나게 달라붙던 나뭇잎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사실 나무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무를 제대로 보았던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곳, 문화공간 정담에서
나무를 끈질기게 쳐다본 노원 청년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었다고 해서 방문해 보았다.

글. 사진. 문준영(노원아띠 기자단)

문화공간 정담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옆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공간이다. 자전거 대여소로 이용하던 곳에서 더 발전되어 여러 예술인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싱그러운 햇살을 맞으면서 뛰어노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무의 미>, 나무의 아름다움이라는 직설적인 제목에 나는 의아함을 가지기도 했다. 정담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아늑한 편인데, 어떻게 커다란 나무의 아름다움을 전시할 수 있을까?

문화공간 정담 전시
<나무의 미>

- 2023.10.24(화)~ 11.4(토) 10:00~22: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 문화공간 정담

나무로 조각만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명과 책상, 서랍장 같은 전시물들로 말 그대로 목공(木工)다운 전시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비록 같은 크루로 시작했으나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나무의 가치, 혹은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하는 전시의 태도가 아름다웠다. 전시의 설명에서는 '우리도 '나'라는 물음표에 답을 해보자.'라고 적혀있었다. 즉, 나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를 거울처럼 스스로를 비춰 그에게 맞는 모양을 깎아낸 것이다.

사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나무와 가까운 세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나 또한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목공 작업에 대한 재미와 배움이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해 더 나아가 나 또한 체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들의 열정과 협력, 그리고 존중들이 묻어나는 작품들을 보며 앞으로도 더 멋진 전시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았다.

문화공간 정담다운 전시였다.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후의 발전까지 기대되게 했으니까. 아늑하고 소박한 공간에서 시작한 작가들이 언젠가는 더 크고 넓은 무대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가까이서 작품을 지켜본 나는 감회가 무척이나 새로울 것 같다. 부디 <나무의 미> 전시에 참여한 작가분들, 크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시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N개의 서울 노원왓수다 문화PD

월계동 사람들이 들려주는 월계동만의 이야기

월계동 시화집『월계 담(談) 집』

지난 10월 28일, 한내행복발전소 1층에서 특별한 책을 주제로 북 콘서트가 열렸다.
월계동 주민들의 작품을 모아 만든 월계동 시화집『월계 담(談) 집』이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다.
『월계 담(談) 집』에 참여한 주민 작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월계동의 첫 번째 주민 시화집『월계 담(談) 집』,
담당 문화PD들에게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사진. 문화진흥부, 김태희·권미성·이정애(노원문화PD 3기)

『월계 담(談) 집』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미성 PD 『월계 담(談) 집』은 월계동 주민들이 직접 쓴 시, 그린 그림, 찍은 사진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난여름, 많은 분이 소중한 작품을 보내주신 덕분에 총 57편의 작품을 수록하여 더욱 풍성한『월계 담(談)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월계 담(談) 집』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태희 PD 월계동 주민들과 즐길 수 있는 축제 거리를 찾던 중, 좀 더 주제를 뾰족하게 가보자며 만들게 된 것이 <월계 담(談)집 프로젝트>입니다. 동네 분들의 소소한 일상을 남겨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월계 담(談) 집』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무엇인가요?

김태희 PD 「사랑하는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작품이요. 딸에게 전하는 사랑이 담뿍 담겨있고 호기심 넘치는 상상력이 함께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애 PD 70대 초반의 할머님께서 써주신 「할아버지」란 작품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할머님께서 처음엔 글을 못 쓴다며 손사래를 치시더니, 곧 20년 전을 회상하면서 쓰신 작품입니다. 그때 그 표정이 어찌나 해맑고 행복해 보였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월계 담(談) 집』프로젝트를 끝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권미성 PD 혹시 어딘가에서『월계 담(談) 집』을 발견하신다면, 작품 하나하나 애정 어린 눈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따뜻한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김태희 PD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잘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쭉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원구 도서관 7곳(노원중앙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상계도서관, 불암도서관, 화랑도서관, 하계어린이도서관, 노원휴먼라이브러리)에서 대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정애 PD 작품을 모으는 일, 편집, 디자인 등 어느 하나 쉬운 것 없이 어렵게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북 콘서트에 많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꼭 동네 사랑방 같았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비록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망설이지 않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 보람 있는 프로젝트 '월계 담(談) 집'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주민 작가분들과 노원문화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월계 담(談) 집 프로젝트 <북 콘서트>

2023.10.28(토)
10:00~12:00

한내 행복 발전소
1층 카페

N개의 서울 노원왓수다 문화PD

새롭게 재단장한 당고개공원에서의 하루

노원 가드닝 뮤직 페스티벌

‘노원 가드닝 뮤직 페스티벌’은 올해 새롭게 단장한 당고개공원 홍보와 더불어 상계권역 주민들의 다채로운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개최된 지역 축제이다. 상계권역의 지역성과 더불어 보다 다채로운 행사를 위해 다육식물 가드닝 체험과 노원구 소재 대학 공연 동아리와 청년예술가들의 공연로 진행되었다.

글. 사진. 문화진흥부, 이아연(노원문화PD 3기)

첫 번째 프로그램은 ‘다육식물 가드닝 체험’이다. ‘다육식물 가드닝 체험’은 빈 화분과 버려진 일회용 컵을 재사용함으로써 일상 속 녹색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고개 공원을 방문한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들이 가드닝을 체험하며 자연을 통한 힐링을 만끽하였다. 원활한 부스 운영을 위해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학생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뮤직 페스티벌이다. 대학 공연 동아리 버스킹은 노원구 소재 대학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의 소리마당, 랩스타, 그레이무드, 세마치 4개 팀이 무대에 올라 뜨거운 에너지를 선사하였다.

청년예술인 공연은 이토록, 이화, 정지훈, 송예진 4인의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되었다. 약 100명의 관객 앞에서 팝과 대중가요, 판소리, 대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되자 관객석에선 리듬에 맞춰 박수가 이어졌다.

당고개공원은 2002년 조성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시설 노후화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편입으로 인해 지난해 6월 생활공원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재정비 공사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3월 재단장하였다. 이번 <노원 가드닝 뮤직 페스티벌>이 많은 사람들이 당고개공원을 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노원 가드닝 뮤직 페스티벌

- 2023.10.28(토) 13:00~17:00
- 수락산 당고개지구공원, 당고개역 3번 출구 인근

N개의 서울 노원왓수다 문화PD

익숙하지만 때론 또 낯설게

공릉동 다시보기

공릉동은 재미있는 지역이다. 많은 공방과 예술가들,
자생적 문화를 가진 협동조합과 지역단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국수거리와 경춘선숲길, 공릉동도깨비시장, 화랑대 철도공원 등
'공릉'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적지 않다.
<공릉동 다시보기>는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치던
공릉동을 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글. 사진. 강지은·한아름(노원문화PD 3기)

지난 10월 14일 진행된 <공릉동 다시보기> '투어'는 함께 만나 공릉동을 알아가고 공릉동에 있는 공방들을 체험하며 공릉동 명소에서 함께 즐기는 패키지 여행이다.

이번 여행의 가이드는 공릉동 꿈마을해설사분들이었다.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경춘선숲길을 걸으며 지역의 문화, 역사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체험도 빠질 수 없다. 라탄 바구니, 아로마 향수 등을 만들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방가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은 공릉동에 있는 이색 공간 '내 곁에 서재'에 모여 지역 DJ의 선곡을 들으며 투어를 통해 돌아본 경춘선을 그려보았다.

10월 28일, 경춘선숲길에서 열리는 꿈길장에선 <공릉동 다시보기> '전시'가 이어졌다. 꿈길장은 도깨비시장과 공릉동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월간 프리마켓이다. 자유로움과 활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투어 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뽐냈다.

공릉동꿈마을여행과 공방, 꿈길장은 <공릉동 다시보기>가 종료되어도 계속된다. 이번 프로젝트가 더 많은 사람이 공릉을 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공릉동 다시보기 투어

2023.10.14(토)
15:00~18:00

공릉동도깨비시장~
화랑대철도공원

노원아띠
NOWON ART MAGAZINE
2023

발행처
(재)노원문화재단

기획·편집
노원문화재단 정책기획부
부장 이종현, 담당 박빛나리, PM 전은진

디자인
프로젝트531

홈페이지
www.nowonarts.kr

주소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81

전화
02-2289-3400

노원아띠 기자단
김윤지, 문준영, 손혜리, 조혜인